

코스피 5052.46 (-224.84)	코스닥 1052.39 (-54.66)
금리 (연고채 3년) 3.552 (+0.010)	환율 (원/달러) 1532.40 (+16.70)

정부 '비축유 스왑'  
2000만 배럴 푼다  
원유 수급불안 해소  
02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중동사태 대응 추경 26.2조 고유가 지원금 최대 60만원

**이재명 대통령, 추경안 의결  
고유가 부담 완화에 40% 배정  
소득하위 70% 국민에 차등지원**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증시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만으로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3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민생 경제 타격이 심각해지자 기획예산처가 통상 40일 걸리는 추경 편성 기간을 역대 최단 기간인 19일 만에 마무리한 것이다.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은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국채 상환(1조원) 등이다.

일단 정부는 중동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나프타 등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에 추경 재원의 약 40%를 배정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예산으로는 5조원, 나머지는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국민 1인당 10만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거주지역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했다. 수도권 거주 시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받는다. 시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35만~50만원을 가산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정부는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수출 및 물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청년 지원에는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센터를 300곳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유망 창업가를 돕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쉬었음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반도체 호황, 증시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해 마련됐다. 추가 국채발행은 없다.

한편 추경안은 국회로 제출돼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타격이 심화하는 만큼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추경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 메모리 부족, 中서 해답 찾는다 대중 규제 속 '생산 이원화' 대응

**삼성전자 中 시안에 4654억 투입  
286단 적층 V9낸드 연내양산 목표  
SK하이닉스 현지 2곳에 1조 투자  
D램 생산량 30~40% 우시 랩 담당**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생산기지 재편에 속도를 내며 공정 고도화와 생산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메모리 공급 부족이 심화되자 미국의 대중 규제 속에서도 중국 공장까지 활용해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31일 금융감독원 및 반도체 전문 매체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중국 산시성 시안 낸드플래시 생산라인에 총 4654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전년 투자액인 2778억원 대비 67.5% 증가한 규모다. 중국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낸드플래시 생산 기지로 전체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공장에서 236단 적층 구조의 8세대 V낸드(V8) 양산을 최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128단(V6) 공정을 대체하는 업그레이드로, 생산 효율과 저장 성능을 동시에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회사는 이번 V8낸드 양산을 발판으로 차세대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시안 2공장(X2)을 중심으로 286단 적층의 V9 낸드 생산라인 구축을 진행 중이며 연내 양산 전환을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기존 제품으로 낸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최대 낸드 제조사인 YMTC가 294단까지 양산에 나서면서 100단대 제품으로는 중국 추격을 따돌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YMTC의 경우 생산 규모나 수율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아울러 미·중 갈등으로 중국 내 첨단 낸드 제조 장비 반입이 까다로워지면서 삼성전자가 공정 전환을 서두른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받아 예외로 인정됐으나 지난해 말부터는 1년 단위로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SK하이닉스 또한 지난해 중국 장쑤성 우시 D램 공장과 랴오닝성 다롄 낸

드플래시 생산 자회사에 1조원이 넘는 투자를 단행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월 우시 랩 공정을 기존 1z에서 1a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시 D램 생산능력은 12인치 웨이퍼 투입량 기준 월 18만~19만장으로 이 중 약 90%가 1a 공정으로 채워졌다. 우시 공장은 이를 통해 5세대 DDR5(더블데이터레이트)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게 돼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a D램은 극자외선(EUV) 공정을 필요로 하지만 해당 장비는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내 반입이 제한된 상태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미세화로 구현에 필요한 EUV공정은 한국에서 진행하거나 나머지 작업은 우시에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시 랩 공정 전환에는 해당 공장이 SK하이닉스의 핵심 생산 기지라는 점도 주목된다. 회사 전체 D램 생산량의 30~40%를 우시 랩이 담당하고 있다.

이중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미·중 규제가 존재하지만 중국 시장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반도체 기업들은 현지 공정을 일정 수준 고도화하면서도 범용 D램 중심의 생산을 이어갈 것"이라며 "고부가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원화 전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 환율 1530원도 넘었다... 亞 주요국 증시 '휘청'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  
중동전쟁 장기화... 위험자산 회피  
코스피 4.26% 내린 5052.46 마감**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까지 올라섰다.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 이란 간 중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일본 등 해외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주요국의 증시도 휘청였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4원 오른 1530.1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30분)를 마감했다. 장중에는 1536.5원까지 오르며 1540원 선에 육박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0일(장중 최고 1561.0원)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시작했지만 단

기적으로 전쟁이 끝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위험 자산 회피로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개방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란의 발전소, 유전, 하르그섬을 폭격할 것"이라며 협박성 발언을 내놨다. 미군 지상군이 중동에 도착하고, 해군과 육군 특수부대 수백명이 최근 중동에 배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고유가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환율이 1600원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서울 세종대로 한화금융플라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현재 달러 유동성 부분이 양호한 만큼 예전처럼 환율과 금융불안을 직결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5050선까지 밀리는 등 아시아 증시도 전형적인 '리스크오프(위험자산 회피)' 장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26% 내린 5052.46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16만 7200원(-5.16%)까지 밀려났다. SK하이닉스는 80만 7000원(-7.56%)에 거래됐다. 미국 구글이 공개한 새 알고리즘 기술 '터보퀀트'의 여진 탓이다. 터보퀀트는 AI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술이다. 일본 닛케이 지수(-1.58%), 대만 가권(-2.45%) 등 아시아 증시도 내림세를 보였다.

한편 30일(현지시간) 지정학적 불안감에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3.25% 상승, 배럴당 102.88달러에 마감해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요내용**  
고유가 피해지원금(총 4.8조원) 지원.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 1인당 10~60만원 지급

	차상위·한부모(36만명)	기초수급자(285만명)	소득하위 70%(3,256만명)
수도권	45만원	55만원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우대)	50만원	60만원	20만원
인구감소(특별)			25만원

\*우대: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 49개 시·군  
특별: 균형발전 낙후도평가하위 40개 시·군  
자료/행정안전부

### 메트로 한줄뉴스



▲李 “중량제봉투 대란 없을것...허위 정보 유포 엄정 대응”  
▲우원식·장동혁, 비공개 회동서 입장차 확인... 개헌 이견 /사진 뉴시스

▲시·도 의회 해외출장, 보고서 공개 10건 중 2건 도 안돼  
▲경찰, '13개 의혹' 김병기, 4차 피의자 소환 조사

▲이준석 정부 추경안 겨냥 “회사는 어려워지는데 회식비 쓰는 사장”  
▲정청래 “경선 통해 경쟁력 입증해야...억울한 컷오프 없어야 해”

# 정부, '비축유 스왑' 전격 시행 산업현장 2000만배럴 풀린다

정부 비축유-기업 원유 맞교환  
SK이노 등 정유4사 모두 참여  
"상반기 원유 수급 문제 없어"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이 지난 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중동전쟁 관련 국내 석유·가스 가격 동향, 주요 업종 영향 및 대응 등에 대해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부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축유 스왑(SWAP·맞교환)'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도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한 대체 물량을 담보로 정부의 비축유를 우선 빌려 쓸 수 있게 해 산업현장의 혈액을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부는 31일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와 기업이 도입하려는 원유를 맞교환하는 방식의 비축유 스왑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비축유 스왑 제도를 시작해 첫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비축유를 단순히 방출해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줬다 받는 방식으로 기업이 신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비축유 스왑은 한국석유공사법 제 10조, 석유 및 석유대체원료 사업법 제 16조 및 시행규칙 제 20조에 따른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을 근거로 별도 법률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정유사가 해외에서 원유를 구입했다는 선적 서류를 확인해주면, 한국석유공사가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중동산 원유를 즉시 내어주고 나중에 배가 도착하면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중동산 원유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보유한 중동산 비축유를 빌려갔다 하면 기본 대여료와 원유를 되돌려주면 된다. 하지만, 타 유종일 경우 기본 대여료 외에 현물가를 적용해 가격 차액을 정산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향후 비축유 구매나 저장시설 증설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이번 비축유 스왑에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 모두 참여하게 된다. 이들 기업이 대여를 원하는 물량은 약 2000만 배럴 규모다. 정부는 우선 4월과 5월 두 달 간 비축유 스왑 제도를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 1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비축유가 약 1억배럴인 점을 감안하면 두 달 간 비축유의 20% 수준이 즉시 활용될 전망이다.

양 실장은 "기존 긴급 방출은 주고받는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스왑은 확보된 물량을 바탕으로 대여하는 것이라 돌아오는 시점이 확인된다"며 "정유사들이 대체 물량을 확보하도록 촉진하는 유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유사들은 이번 비축유 스왑 요청 물량보다 많은 대체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실장은 "기업들이 대체물량으로 확보한 물량은 2000만배럴보다 많다"며 "현재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대체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5~6월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스왑 운영과 IEA 국제

공조 방출 등을 통해 상반기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비축유를 일방적으로 방출하면 정부 재고는 떨어지고 기업은 물량 확보 노력을 덜 하게 되지만, 스왑은 기업의 재고 소진 시점을 늦추고 정부의 최종 방출 시기도 뒤로 미룰 수 있다"며 "파악된 바로는 6월까지 수급은 문제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업부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 따르면, 후티 반군 참전, 미국 지상전 준비 보도, 이란의 협상 부인 등으로 중전 기대가 낮아지며 국제유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14.39달러로 전일 대비 1.4% 올랐고 서부텍사스유(WTI)도 104.90달러로 2.0% 상승했다. 2월 말 대비 상승률은 각각 57.8%, 56.5%에 달한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이날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885.61원으로 전일 대비 0.24% 상승, 경유는 1877.00원으로 0.20% 올랐다. 정부가 지난 27일 시행한 2차 최고가격 이후 휘발유는 3.6%, 경유는 3.4% 상승한 상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조선 관련 핵심 소재인 헬륨, 브롬화수소, 황산, 에틸렌 등은 상반기까지 수급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액제 포장재는 3개월간 수급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고 대체 공급도 추진 중이다. 다만 자동차 생산부품과 가전 내외장재 등 일부 품목은 전쟁 장기화 시 수급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지난달 30일 LS전선 싱가포르지사에서 열린 희토류 공급망 구축 관련 협약식에서 구분규 LS전선 대표(오른쪽부터),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 아만다 라카즈(Amanda Lacaze) 라이너스 대표, 크리스 제니(Chris Jenney) 라이너스 영업/시장개발부 부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S에코에너지

## LS에코에너지, 희토류 원료 확보 연내 방산용 금속 양산체제 구축

非중국 밸류체인 구축 본격화  
이상호 대표 "국가 자원안보 기여"

LS에코에너지가 중국 외 기업으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방산용 희토류 금속 양산체제 구축에 나선다. 중국 편중이 절대적인 희토류 금속·자석 공급망에서 비중국 밸류체인 구축을 본격화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주도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LS에코에너지는 호주 희토류 기업 라이너스와 LS전선 싱가포르지사서 협약식을 열고 희토류 원료 공급 및 금속의 연내 양산 계획을 구체화했다고 31일 밝혔다. 원료는 라이너스가 공급하고, 금속화는 LS에코에너지가, 영구 자석 생산은 LS전선이 맡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가동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중국 밸류체인을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희토류 금속과 자석 공정의 90% 이상을 중국이 맡고 있을 정도로 관련 산업은 중국 자본과 인력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계 기업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도 희토류 금속화 공정을 수행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비중국 밸류체인 구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중국 희토류 공급망 확보가 중요해

진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는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적으로 통제하며 필요할 경우 공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 산업과 방위산업 전반이 희토류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일은 공급망 안정과 자원 안보 차원에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LS에코에너지는 연내 베트남 LSCV 공장에 금속화 설비를 구축하고 양산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우주항공과 미사일 등에 쓰이는 방산용 희토류 금속 생산을 시작하고 2027년부터는 로봇과 전기차(EV)용 금속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희토류 산업에서 금속화는 단순 원료 확보를 넘어서는 고난도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LS에코에너지는 방산용 사마륨과 로봇, 해상풍력 등에 사용되는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 등 연간 약 2500톤 규모의 희토류 금속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1만톤 이상의 영구자석을 제조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는 "라이너스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자원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 봄바람 타고 온 제30회 기장멸치축제

## 2026. 4. 24(금) - 26(일)

### 기장군기장을대변향일원

**초청 가수**

**24일(금) 정세주 | 천록담**

**25일(토) 손빈아 | 채운 | 최지혜**

**26일(일) 미스터킴 | 김수민 | 장하은**

**행사 프로그램**

**24일(금)** | 낚시배 승선체험 | 기장수산물 깜짝경매 | 멸치은빛樂 공연 1,2 | 길놀이 퍼레이드 | 개막식  
멸치축제 30주년 기념 퍼포먼스 | 멸치축제 30주년 기념 축하공연 | 해상 불꽃쇼

**25일(토)** | 낚시배 승선체험 | 기장수산물 깜짝경매 | 멸치은빛樂 공연 3 | 나는 어부야!(맨손 활어 잡기)  
한수원 고리온데이 - 특산물 구매시 바우처 증정 | 기장멸치 가요제 예선  
멸치축제 30주년 기념 콘서트 | 해상 불꽃쇼

**26일(일)** | 낚시배 승선체험 | 기장수산물 깜짝경매 | 멸치은빛樂 공연 4 | 나는 어부야!(맨손 활어 잡기)  
멸치 잣밭 김치 담그기 및 전담식 | 기장멸치 가요제 본선 | EDM | 시상 및 폐막식 | 해상 불꽃쇼

**무 료 체 험** : 맨손활어잡기(현장접수)/낚시배 승선체험(현장접수)      LG헬로비전 특집방송

**특 별 행 사** : 기장멸치가요제(사전접수)/멸치회무료시식회(1일회)      『기장멸치가요제 본선 (태군노래자랑)』

문화누리카드 사용 (3일간)  
부산중기청 동행축제(영수증 경품이벤트 3일간)

**문 의 | 접 수** :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회(051-721-4063)

**주최** |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회 (문의 : 051-721-4063)

**후원** | 기장군, 기장군의회,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기장수산업협동조합, 동부산농협  
대변멸치유자랑협회, 기장수협중앙회협의회, 멸치소매인협회, 대변항상가변영회, 대변해조류양식협회, 대변어촌장터  
해운대비치골프&리조트, 두산에너지빌리티, KBI건설, 이케아동부산점, 더젼코리아, 대선주조(주), 흥일식품

**무 료 서틀버스 운행**

**기간** : 4월 25일(토), 4월 26일(일)  
**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승차위치** : 동해선 기장역 제2주차장 앞 도로변

# ‘복합위기’ 총력 대응... 서민 부담 줄이고 산업 방파제 세웠다

## 26.2조 규모 1차 추경안 의결

행안부 9.5조 최대 규모 편성  
나프타·비축유 확보 지원 강화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확대  
청년취업·창업예산 등 확충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불안과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민생 안정과 산업 충격 완화, 공급망 대응, 청년·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기후부·농식품부 등 주요 부처에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물가·산업 충격 대응과 민생 안정을 핵심 목표로, 주로 현금성 지원과 산업 대응 예산이 포함된 ‘복합 위기 대응형 추경’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물가 상승 대응 민생 안정 ▲중동 전쟁발 공급망·수출 충격 대응 ▲청년·일자리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 9조5240억원, 산업통상부 9241억원, 중소벤처기업

### 수출기업 중동대응 2026 추가경정예산안

피해 기업·산업 지원 ..... +1.1조원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차원, 수출바우처 +0.1조원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 추가 구축 지원 380개사  
-수출 정책금융 7.1조원 공급  
-중동수출이 어려워진 기업, 해외인증 획득 확대 +100억원

**피해산업**  
-관광업계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 3000만원  
관광상품 개발·홍보 지원 306억원  
-석유화학·철강산업  
:기술 컨설팅, 재직자 훈련 등 맞춤형 지원 확대 +70억원

공급망 안정화 ..... +0.7조원

**석유화학 산업**  
-나프타  
:수입비용 일부 지원 0.5조원  
-석유  
:비축물량 130만배럴 추가 확보 0.2조원  
석유 불법거래 감시 통합관제센터 165억원  
유가공개 시스템 고도화 20억원  
-희토류  
:재자원화를 위한 시설·원료 확보 81억원  
-요소  
:중동 의존도가 높아, 수입선 다변화 39억원

자료/기획예산처

부 1조9374억원, 고용노동부 5386억원, 기후부 5245억원, 농림축산식품부 2658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은 행안부에 배정돼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쓰인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직접 완화하기 위한 민생 대응 성격이다. 행안부는 9조524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총 4조8252억원이 투입되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원 등 지역별 차등 지급된다. 또 지방교부세 4조6793억원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9241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나프타와 비축유 등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치다. 나프타 수급 지원 4695억원, 석유 비축 확대 1584억원, 희토류·요소 공급

망 대응 120억원 등 에너지·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에 6642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또 수출기업 긴급 지원 1459억원, 제조업 AI 전환 1140억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석유화학 업계 타격 완화와 공급망 대응을 위해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9374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수출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 청년 창업 확대, 제조업 AI 전환에 투입된다. 특히 수출 바우처 1000억원, 긴급경영자금 2500억원, 소상공인 특별자금 32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창업 지원을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550억원, 모태펀드 1700억원도 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386억원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3866억원(72%)은 청년 취업 지원에 집중한다. 주요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련형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확대

등이다. 특히 ‘쉬웠을 청년’ 증가에 대해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기후부 5245억 원 규모 추경을 편성, 에너지 비용 지원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에너지 바우처 102억원,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205억원, 전기화물차 보급 900억원, ESS 구축 588억원 등이다. 고유가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농식품부 2658억 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유류·비료 지원에 배정했다. 면세유 지원 78억원, 비료 지원 42억원, 사료 구매자금 650억원, 농축산물 할인 500억원 등 농업 생산비 상승 대응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대해 “고유가·공급망 불안·수출 둔화 등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민생 안정과 산업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 수출피해 최소화·대체시장 확보 소상공인 지원·지방제조 AX 강화

### 중기부, 1조9374억 추경 편성

물류차질 대응 수출바우처 확대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편성  
소상공인 특별자금·보증 확충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중동 전쟁에 따른 수출 피해 중소기업을 추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 안전도 돕는다.

중기부는 1조9374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수출 중소기업 중동전쟁 피해 최소화 ▲소상공인 경영 안정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창업 촉진 ▲지방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AI)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대체 시장 확보를 뒷받침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운송 차질과 물류비 상승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바우처 지원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교환율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도 2500억원을 더한다. 또 온라인 수출 지원에 122억원을 추가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1000억원 증액한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도 힘쓴다.

특별경영안정자금에 32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경기침체지역 및 재난피해 소상공인, 금융소외계층, 청년사업자 등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기술

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1000억원씩 출연해 보증 공급을 확대한다.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246억원을 추가했다. 로컬 소상공인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과 전통 시장별 맞춤형 공동 마케팅 지원을 신설해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의 자생력도 높인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창업시대’를 선포한 만큼,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늘린다.

혁신 창업가를 발굴해 아이디어에서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1550억원을 배정했다.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판로 확보, 사업화 및 자금 지원이 늘어나고 재도약지원자금, 중소기업재기지원금을 포함한 재도전자들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테크 창업과 로컬 창업을 뒷받침하고 자 창업 도시와 연계된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활성화에 24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로컬 창업가 지원 사업에 603억원을 더한다. 초기 창업기업, 재도전자기업, 지역 소재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만들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에 1700억원을 추가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AX로 제조 경쟁력을 키운다.

/김승호 기자 bada@



metro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국가대표급 카드혜택의 시작

그라운드를 가리지 않는 ALL라운드 혜택  
**KB ALL 카드**

YOU연한 라이프에 YOU용한 맞춤 혜택  
**KB YOU Prime 카드**

꼭 필요한 교육 NEED에 집중 혜택  
**KB NEED Edu 카드**

□ KB ALL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SA)) 2만원 / 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1만5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SA)) 1만5천원 / 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1만3천원, □ KB YOU Prime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K-World(CB))) 3만원 / 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2만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K-World(CB))) 2만원 / 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2만원, □ KB NEED Edu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2만5천원 / 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1만8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SA)) 2만5천원 / 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1만8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1만5천원 / 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1만2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MSA)) 2만원 / 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1만2천원

■ 연회비: 환율변동/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 (최고 연 20% 이내) \* 단, 연회비 발생 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이례와 같이 적용함 - 일일 가내 연체 시 가내 발생 시점의 최소 기간(2개월) 유이자월부 수수료 적용 - 무이자월부 가내 연체 시 가내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 기간의 유이자월부 수수료 적용 - 그외의 경우 정상이자율은 상환상 심사평정이율과 상호금융 기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안락은행에서 매일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계약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기간 원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 개인 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법제(조제)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금융업법 제 26조-2(2) (2026.02.13 ~ 2027.02.12)

# WTI 100달러 돌파... 소비자 물가·기업 생산 모두 타격

## ⚡ 중동 리스크, 한국 혼돈다

### ② 유가 쇼크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직격탄이다. 급등한 유가는 기업들의 생산비를 증가시키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압박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경제 구조가 형성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바뀐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 현재 유가 쇼크는 우리나라 경제의 '숨은 금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중동 전쟁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다. 5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102.88을 기록하면서 전장보다 3.25% 올랐다. 종가 기준으로 WTI 선물 가격이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이후 처음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 개전 31일 만이다.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한국 휘발유값도 고공행진이다.

지난달 3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85.61원으로, 전월보다 4.5원 올랐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1938.10으로 같은 기간 5.10원 상승했다.

◆ 국내 원유 수입, 중동 의존도 70%  
한국의 경우 중동 지역의 에너지 수입



지난달 31일 서울 한 주유소에 휘발유 판매 가격 1998원이 게시되어 있다.

韓, 중동 원유 수입 의존도 높아  
정유·석화업계 공장 섰다운 현상  
항공업계, 비운항·비상경영 결정  
소비자물가지수 2%대 돌파 예측

1970년대 오일쇼크 재현 가능성  
전쟁 인한 경기둔화 리스크 구조

의존도가 큰 만큼 고유가 직격탄이 더 크다.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원유의 70.7%를, 액화천연가스(LNG)의 20.4%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다.

실제 중동 원유 수입 의존도는 매년 커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중동 원유 수입 비중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지난 2022년 67.4%에 달했으나, 이후 2023년부터 70%선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올해 1~2월만 해도 이라크·쿠웨이트·카타르·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중립지대에서 들여온 원유 수입량은 총 1억2427만6000배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가 수입량(1억7731만1000배럴)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 기업 생산 차질에 소비자 물가까지 '휘청'

고유가에 국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정유·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연쇄적으로 공장 섰다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난마저 가중되면서다.

제일 먼저, LG화학 여수 2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 여천NCC는 여수에 있는 프로필렌 전용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롯데케미칼 역시 여수 공장 전

체 생산 시설 가동을 중단했다.

정유업계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가 대산공장 오는 5월까지 일부 공정을 대상으로 정기 보수를 실시한다며 설비가동을 중단했다. 예정된 정기 보수 일정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지만, 업계에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리스크 대응 성격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항공업계에서는 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총 5곳의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일부 노선 비운항을 결정했다. 치솟는 고유가에 항공유 등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아시아나항공·티웨이항공 등도 최근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타격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123.25로 전월보다 0.6%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4%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한두달 정도 시차를 두고 향후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생산자물가가 오르면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를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대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 과거 오일쇼크 상황 반복

현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1970년대 오일쇼크가 재현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중동 전쟁→고유가→기업 생산비 증가→물가 상승→경기 둔화의 리스크 구조

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동 전쟁으로 1·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난 지난 1970년대를 돌아보면, 1차 석유파동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1개월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했다. 2차 석유파동 때는 국제유가가 5개월 사이에 2.6배 상승했다. 2차 쇼크 때는 물가가 오르며 스태그플레이션도 현실화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발발했던 1990년대의 걸프전 때는 국제유가가 3개월 사이 17달러에서 41달러로 상승하면서 오일쇼크가 또다시 도래했다.

앞선 세 번의 위기와 현 상황의 공통점은 전쟁·혁명과 같은 비경제적 충격에 의해 촉발됐다는 점이다. 당시 모두 전쟁으로 인해 원유 물량 차질이 동반되면서 유가가 단기간에 폭등하는 등의 위기 형태가 뚜렷했다.

여기에 현재 자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가 점점 더 커지면서 과거의 상황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 센터 정보분석팀 관계자는 "과거의 역사를 되새겨 보면, 중동 정세 불안이 대부분 단기에 끝났으나 일부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었기에, 이번 사태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간, 석유 및 가스 생산 시설 피해 정도, 미국과 이란 및 주변국의 대응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中企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1880만원”

대중기협력재단, 고용부·신한금융과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사업 추진  
200만원 추가 지원... 인건비 부담 ↓

정부와 민간이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대중기업농업협력재단은 고용노동부, 신한금융그룹과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또다른 인력을 채용하면 고용부가 기존에 지원한 연간 최대 168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에 더해 총 200만원의 문화 확산 지원금을 더 주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1명당 연간 최대 18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 확산 지원금은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원씩 지급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초기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현장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다.

지난해 신설한 문화 확산 지원금은 신한금융그룹이 대중기협력재단에 출연한 상생협력기금 100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의 경우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2199개 중소기업에 35억5000만원의 지원금이 돌아갔다.

문화 확산 지원금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인 미만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지원금 수령 이력 없음 ▲2025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간접노무비	-	월 30만원 특례 3개월 월 100만원 (남성 1~3번째 월 10만원 추가)	월 30만원 (1~3번째 월 4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월 130~140만원 (인수인계 포함)	월 130~140만원 (인수인계 포함)	월 120만원 (인수인계 포함)
동료근로자 지원	-	월 40~60만원	월 20만원
대체인력 채용 알선	구인기업과 구직자 알선·매칭(무료)		

자료/고용부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 신규 채용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어야 한다.

문화 확산 지원금은 기업이 육아휴직대 체인력 지원금 신청시 고용부 통합서비스인 '고용24'에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고용센터가 접수를 받으면 고용부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중기 협력재단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고용부의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30일 이상 주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1인당 월 120만~1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기존(월 120만원)보다 많은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0인 이상 기업은 월 지원금이 130만원이다. 육아휴직을 한 뒤 복직 후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대중기협력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외에도 출산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부담 지원금 등이 있어 기업들이 활용해 볼 만하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준다. 특히 만 12개월 이내(임신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휴직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매달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2월 반도체 생산, 1988년래 최대치 기록

데이터처 '2월 산업활동동향' 내달 이후부터 중동사태 반영

지난 2월 반도체 생산이 1988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2월 산업생산도 5년여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도 증가했으나 소비는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6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은 전월대비 2.5% 늘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전달에 비해 5.4% 증가했는데, 특히 반도체(28.2%) 생산이 큰 폭으로 늘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증가 폭은 1988년 1월(36.8%) 이후 38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지난해에도 3, 6, 9, 12월 분기 말에 크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난 1월에 감소했다가 2월에 다시 증가했다. 반도체는 업황이 좋아 일부 공장에서 생산능력의 정점을 찍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와 전기장비를 중심으로 늘면서 전월 대비 3.9%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98.6%로 전월 대비 0.5%포인트(p) 하락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 도소매(2.7%), 전문·과학·기술(3.3%)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한편,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보합을 나

타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5.4%)와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5%)에서 판매가 줄었다. 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6%)에서는 늘었다. 업태별로 승용차·연료소매점(-0.8%), 면세점(-6.4%)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3.5% 증가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40.4%)와 반도체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3.8%)에서 투자가 모두 늘었다. 특히 자동차가 전월보다 65.4% 증가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2월 산업활동동향에는 중동전쟁 여파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달 발표되는 3월 산업활동동향부터 그 영향이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처는 본격적인 중동 사태의 반영은 4월 이후부터로 관측했다.

이 심의관은 "중동 사태에 따른 영향은 업종별 변동률과 재고 수준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3월에도 (영향)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본격적인 영향은 4월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월에도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소비·기업 심리 둔화 등으로 경기 하방위험 증대가 우려된다"며 "중동전쟁의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 등을 총동원해 비상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LEEUM  
In partnership with  
KB Financial Group

리움미술관 현대미술 소장품전 전시 후원  
사진 이현구, 사진 제공 : 리움미술관

화랑미술제 'ZOOM-IN Edition 7'  
KB스타상 조각부문 수상자 <송인욱>



Kiaf SEOUL 2024~2026 리드 파트너

#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Kiaf SEOUL 2025

Kiaf SEOUL | KB금융그룹

## 국민의 일상에 문화를 그려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상처럼 쉽게 문화를 즐기고

K-컬처를 이끌어갈 신진 작가들은  
그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K-컬처 리딩 금융그룹 KB,  
금융을 넘어 문화 강국의 주인공이 될  
국민의 내일을 함께 그려가겠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

**K-Culture**  
밸류업 프로젝트

**Kiaf SEOUL**  
3년 연속 리드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아트 페어 지원

**화랑미술제 신진작가 특별전**  
**ZOOM-IN Edition 7**  
신진 작가들의 창작과 성장 지원

**리움미술관 전시 후원**  
예술작품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리움미술관 전시 후원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무료 전시 관람, 체험 프로그램 지원

**KB 금융그룹**

# 이 대통령 “필요시 긴급재정명령”… 에너지 위기 대응 총력

헌법 제76조 규정된 대통령 권한 관행 없애지 않는 선제적 대응 제도·절차까지 과감히 변경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와 관련해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는 내우·위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등과 관련해 긴급조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중동전쟁 대응현황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치가 필요한데 국회 입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질서·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행사된다.

다만 긴급명령 발동시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때문인지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매우 드물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1993년

에 발동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이 대통령은 “각 국무위원이나 부처, 청에서 위기 대응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제도나 법령, 관행 등 걸리는 일이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사실 통상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며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뀌어야 한다. 지금 ‘수입 규제 때문에 어렵다’, ‘심사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심사 절차를 앞당기거나 필요하면 절차를 생략하는 것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 해 버리는데, 일선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국무위원들이 풀어줘야 한다”며 “내가 책임지겠으니 적극적으로 찾아내라고 하며 장애물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필요를 최대한 수집한 뒤, (현장 요구가) 합당한데 현 제도나 법령에 제한이 있으면 그것을 극

복할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 방침도 바꾸고 관행에서 벗어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해 주면 좋겠다. 모든 법 제도에는 예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라며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앞뒤의 맥락을 보자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율적인 대안들을 내놓아라, 그런 도출된 대안들을 통해서 특단의 대책을 비상한 대응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으니 그중 하나의 예시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들었다고 할 수 있겠다”고 부연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6정당, 개헌 추진 공식화… 5월 의결 목표

국힘 제외 민주·조국·개혁신당 등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 담겨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당이 31일 개헌안 공동 발의 작업에 착수했다.

우 의장과 한병도 민주당·서왕진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천하람 개혁신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본청 국회의원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압도적 다수의 뜻과 국회 제정당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발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날부터 국회의원 공동발의 작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언제 또 이 정도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 두 차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원내대표 연석회의로 이어졌다”며 “참석자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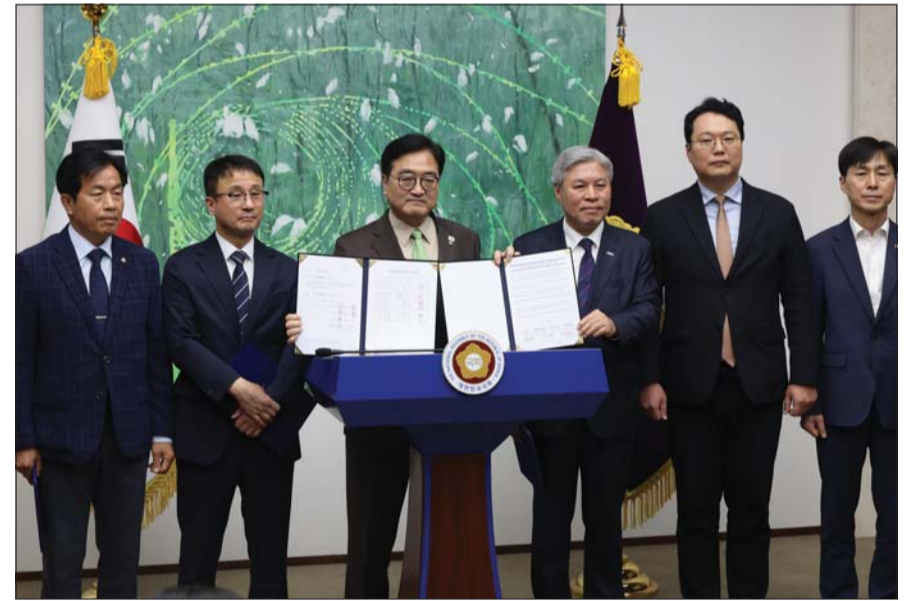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개헌안 공동발의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이날 회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국민의힘만 개헌안 공동발의에 참여

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 의장은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개정안 발의와 5월 초순 예정된 국회 의결까지 아직 시간이 많다”며 “이 시간까지라도 국민의힘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개헌에 참여하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 발전 의제 등이 담겼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에서 공동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국회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뉴시스

## ‘이정현 공관위’ 일괄 사퇴… 국힘 재정비

경기지사 제외 광역단체장 공천 완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새 공관위 담당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31일 공관위의 일괄 사퇴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를 새로 꾸려 남은 공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하고 중앙공관위 차원의 광역단체장 공천을 대부분 끝냈다”며 “제가 오늘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이 일괄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 지도부와 논의를 통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새 공관위를 구성해서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요청했다”며 “대표도 그 부분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50만 이상 도시 경선결과를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후 공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뉴시스

가 이틀 만에 반복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공천은 모든 것을 담아내진 못했지만, 앞으로 국민의힘이 변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며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라는 화두를 던졌다. 낙하산·계파·

파벌·나눠 먹기 공천을 배제하려고 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재보궐 선거와 경기지사 및 남아 있는 미공천 지역에 대한 모든 업무는 새 공관위가 승계할 것”이라며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새 공관위가 출범해도 기존 컷오프 반복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관위의 결정은 내부의 합법적인 규정과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29일 페이스북 북에서 “당이 필요로 하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제 역할을 다할 준비를 할 것”이라며 6·3 지방선거 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 문제는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위원장 임무를 마치고 또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 與, ‘지선 공식’ 신임 상임위원장 발표

안호영, 기후에너지노동위원장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6·3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공식 상임위 3곳의 신임 상임위원장 명단을 발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은 4선 서영교 의원이 내정됐다. 법사위는 그간 추미에 위원장 체제로 운영됐으나, 그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식이 됐다.

신임 행정안전위원장은 3선 권철승 의원이 내정됐다. 그간 행안위를 이끌어 온 신정훈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은 3선 소병훈 의원이 내정됐다. 서울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 기존 박주민 위원장은 전날 “박주민의 정치는 서울에서 계속된다”며 사임의 뜻을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전북지사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걸 고심했으나,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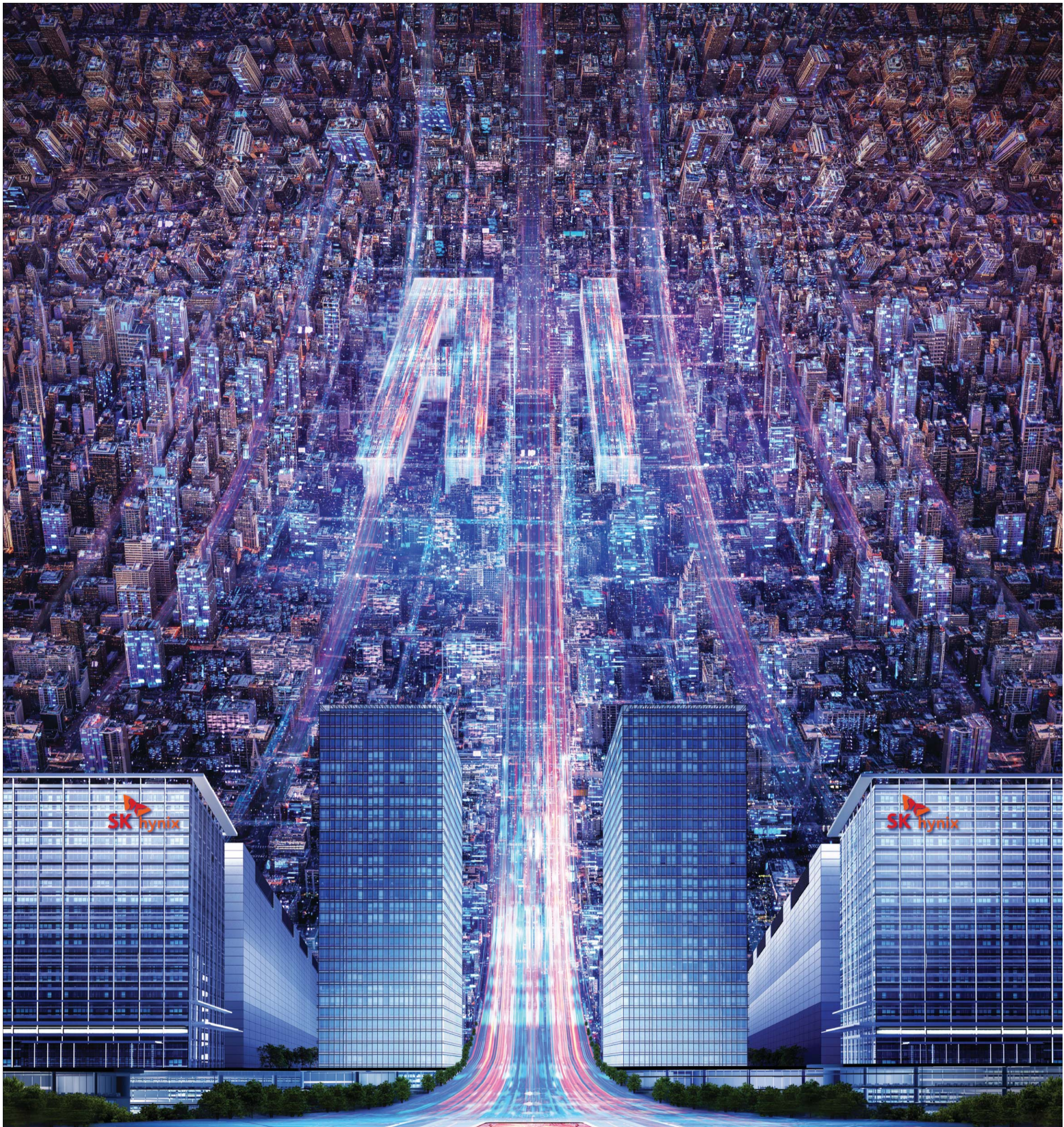


추미에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지사에 불출마하고 위원장직을 계속 맡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하반기 상임위원장은 오는 5월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인선하기에 이번에 선임된 위원장은 두 달만 임기를 한다”며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고 추경·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해서 기존의 관례를 따르지 않고 현재 활동하는 상임위 안에서 인선했다”고 설명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SK hynix

SK hynix

# 시 대 전 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 “환율 높지만 큰 의미 부여 말아야... 달러 유동성 양호”

**신현송 한은총재 후보자 첫 출근**  
“환율-금융불안 직결할 필요 없어  
매파·비둘기파 이분법 구분 안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첫 공개 메시지는 금리 인상·인하 방향 자체보다 외환·금융시스템이 충격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에 더 가까웠다.

중동 사태를 한국 경제의 단기 최대 리스크로 지목하면서도 높은 환율 수준 자체보다 달러 유동성이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적어도 첫 메시지에서는 ‘금리 방향’보다 ‘시스템 체력’을 먼저 점검하겠다는 뉘앙스를 남겼다.

31일 신 후보자는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 문답에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중동 사태”라며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에는 상승 압력이 있고 또 경기는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물가 상방과 경기 하방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는 질문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31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차려진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는 “위험 불확실성이 많아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가장 눈에 띈 것은 환율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신 후보자는 “환율 레벨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며 “달러 유동성에 관한 지표들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했다. 예전처럼 환율 수준을 곧바로 금융불안과 직결시키기보다, 외화 유동성과 자금 흐름, 금융시

스템의 흡수력을 함께 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런 문제의식은 지금 한국은행이 마주한 정책 환경과도 맞닿아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면서 성장 회복을 지원하되 물가 흐름과 함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은은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매파’ 평가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매파나 비둘기파 이렇게 이분식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 전체의 흐름과 금융제도, 실물경제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파악한 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문회 전부터 특정 성향을 앞세우기보다, 복합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읽는 접근을 강조한 셈이다.

이 같은 색채는 신 후보자의 이력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경제자문역을 지냈고 2025년 1월부터는 통화경제국장을 맡았다. 아울러 프린스턴대 교수, 옥스퍼드대-런던정경대 재직, 2010년 한국 대통령 선임보좌관으로서 금융안정 정책과 G20 의제 수립에 참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의 지명 설명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신 후보자 지명

브리핑에서 그를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소개하며, 중동 사태로 국제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오늘 신 후보자가 내놓은 첫 메시지도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을 한 축에서 보겠다는 ‘균형론’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결국 신현송 체제의 첫 시대는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중동발 공급 충격과 고환율 변동성,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대외 유동성 문제를 어떤 프레임으로 읽고 시장과 소통하느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신 후보자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경로”라며 중요한 정책 요소라고 평가했다. 다만 점도표나 포워드가이던스 유지 여부 등 구체적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답변하기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 ‘이자폭탄’ 차주, 금리인하 요구권에 관심

주담대 금리 상향 7% 넘어서  
당국, 금리인하 자동신청 서비스 도입  
작년 은행권 수용률 30% 채 안돼  
“금리 인하보다 리스크관리 우선”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향이 3년 5개월 만에 연 7%를 넘어섰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간 전쟁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금리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시장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차주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이 허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고정금리는 연 4.41~7.01%로 집계됐다. 주담대 금리 상향이 7%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0월 이후 41개월 만이다.

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시장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고정금리 산정 기준

인 5년만기 은행채 금리는 중동 사태 전인 2월 27일 3.572%에서 이달 30일 4.079%로 0.507%포인트(p) 상승했다.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졌다. 중동 지역 긴장감 고조로 유가는 폭등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차주들의 시선은 ‘금리인하요구권’으로 향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당시보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된 차주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금융회사는 심사를 거쳐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금리를 조정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도입했다. 오픈뱅킹 기반 앱에서 한 번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 변동을 감지해 금리인하를 자동 신청하는 서비스가 도입됐다.

다만 자동 신청 경리가 넓어졌다고 해서 실제 금리 인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은행은 차주의 신용 변화가 충분하지 않으면 대부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보수적으로 심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주요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금리인하 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각각 20.6%, 32.3%에 그쳤다. 신청자 10명 중 7명은 원하는 금리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금융권 관계자는 “조달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빨라 금리 반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보다 리스크 관리가 우선 순위다”라며 “금리인하요구권 문의는 늘고 있지만 실제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케이스는 제한적이다. 신용 개선이 뚜렷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2월 임대차 거래 10건 중 7건 ‘월세’

주택 매매거래 5.8건 전년비 14% ↑  
전·월세 거래량 25.3만건 8.9% 줄어

월세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임대차 거래 10건 가운데 7건은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 778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다. 수도권은 2만 945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6%, 서울은 946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3% 늘었다.

전·월세 거래량은 2월 총 25만 342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9% 감소했다.

특히 전세 거래량이 7만 630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나 줄었다. 반면 월세(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 거래량은 17만 711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늘었다.

이에 따라 월세 거래의 비중은 68.3%로 전년 동기 대비 6.9%포인트(p) 높아졌다. 월세 비중은 2월 누적 기준으로 지난 2022년 47.1%에서 ▲2023년 55.2% ▲2024년 57.5% ▲2025년 61.4% ▲2026년 68.3% 등으로 빠르게 상승했다.

공급지표는 작공은 늘었지만 인허가와 준공은 줄었다.

지난 2월 수도권 착공은 6394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3.7%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3031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9210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31.5% 증가했지만 서울은 2591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6.5% 감소했다.

준공은 수도권이 5711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6.4% 감소했고, 서울도 전년 동월 대비 25.4% 감소한 1703가구로 집계됐다.

분양 시장은 회복세를 보였다. 전년 동월 실적이 없었던 수도권은 7253가구가 분양을 진행했고, 서울 역시 2월 876가구를 분양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보험사기 적발액 1조1500억 ‘사상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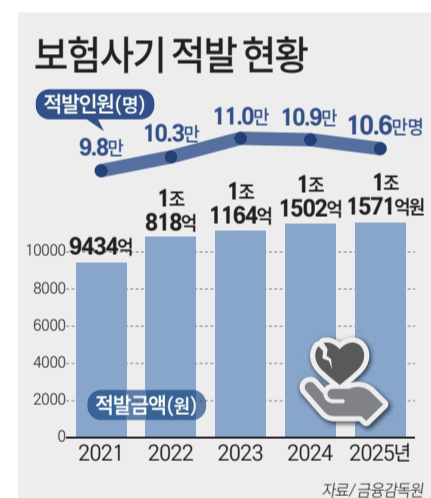
금감원, 전년대비 69억 0.6% 증가  
적발 인원 줄었지만 건당 규모 커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 1500억원을 넘어서며 또다시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적발 인원은 줄었지만 사기 건당 규모는 더 커졌고,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된 조직형 사기가 당국의 새 단속 타깃으로 떠올랐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571억원으로 전년대비 69억원(0.6%) 증가했다. 반면 적발인원은 10만 5743명으로 3245명(3.0%) 감소했다.

금감원은 적발금액은 늘고 인원은 줄어 개별 사기 건당 금액이 커지는 보험사기 고액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5724억원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장기보험이 4610억원으로 39.8%를 차지했다. 두 종목이 전체 적발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 사고내용조작이



6350억원으로 54.9%에 달했고, 허위사고가 2342억원(20.2%), 고의사고가 1750억원(15.1%)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병원을 통한 보험사기 확산이 두드러졌다. 사고내용조작 유형 가운데 병원이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한 보험사기는 273억원으로 전년보다 233억원 늘어 582.5% 급증했다. 금감원이 이번 자료에서 병원 주도 실손보험·자동차보험 사기를 별도 대응 과제로 제시한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김주형 기자

## 신한은행, 연금수령 고객 헬스케어 서비스

맞춤형 헬스케어 기업 GC케어 협력

신한은행은 맞춤형 헬스케어 기업 GC케어와 협력해 연금수령 고객을 위한 ‘신한 SOL메이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026년 3월부터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보훈·사학 등) 또는 신한은행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신한은행 계좌로 처음 수령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GC케어는 복잡자활당

스의 자회사로, 전문의료진의 건강상담, 대형병원 진료예약, 간병인 지원서비스 등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전문기업이다.

연금수령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대학병원 진료예약 ▲건강검진 예약대행 및 우대서비스 ▲중증질환 환자 대상 간호사 진료 동행 및 차량 에스코트 등으로, 고객은 전문 의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주요 기업 주주총회

# HD현대, 정기선 체제 본격화... 주주환원·사업재편 가속

지난해 역대최대 실적 달성  
전동화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  
조선부문 한미 협력사업 추진



권오갑 HD현대 명예회장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성남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제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HD현대 정기선 회장 중심의 경영 체제 전환에 나선 가운데, HD현대와 HD한국조선해양은 31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 재편과 주주환원 확대 방침을 제시했다. HD현대에서는 권오갑 회장의 용퇴와 함께 조영철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지난해 예고된 공동대표 체제 전환 절차를 밟았다.

HD현대는 경기도 성남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제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난해 매출 72조2594억원, 영업이익 6조996억원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그룹 시가총액은 100조원을 넘어섰고, 조선 부문에서는 세계 최초로 선박 5000척 인도를 달성했다.

권오갑 명예회장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리스크 대응과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동화·자동화와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는 조선·에너지·건설기계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이다. 조선은 통합과 선별 수주, 공정 혁신으로 수

익성을 개선했다. 스마트 조선소 구축도 진행 중이다. 마스가(MASGA)와 관련해 미 해군 MRO 중심 협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는 HD현대 오일뱅크 중심 구조 전환과 고부가 확대를 추진한다. 건설기계는 통합 법인 기반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HD현대는 배당성향 70% 이상 정책에 따라 주당 1300원 결산배당을



정기선 HD현대 회장

확정했다. 연간 배당금은 4000원이다. 주총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영철 부회장은 사내이사, 장경준 전 고문은 감사위원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HD한국조선해양도 주총에서 실적과 전략을 공개했다. 회사는 지난해 매출 29조9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 증가했고, 영업이익의 3조9000억원 이상을 기록하며 지주사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냈다. 총 137척을 수주해 5년 연속 수주 목표를 달성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싱가포르 법인 설립과 베트남 HD현대에코비나 인수를 통해 해외 사업 체계를 강화하고 친환경 기자재 역량을 내재화했다.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활용한 MRO 거점 구축과 한미 조선 협력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추진 기술과 AI 기반 생산 고도화도 병행한다. 통합 시너지 기반 경쟁력 강화와 특수선 시장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

조선사업 수주는 지난해 184억1700만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목표는 200억 4600만달러다.

정관 변경 등 안건도 원안 가결됐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은 삭제됐고, 사외이사 재선임과 감사위원 신규 선임이 이뤄졌다. 주주환원 정책도 이어간다. HD한국조선해양은 주주환원을 30% 이상을 지향하는 배당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 LG화학, 행동주의 펀드 안건 ‘모두 부결’

팰리서 지배구조 개편 요구 방어  
김동춘 사장 “추가 주주환원 검토”



김동춘 LG화학 사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관희기자

LG화학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캐피탈의 지배구조 개편 요구를 막아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제안에 반대 의견을 행사하면서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과 선임독립이사 선임 등 팰리서가 내건 핵심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화학 제2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제2안(정관 변경의 건) 안건 가운데 제2-7호인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안건이 부결됐다. 제2-8호 선임독립이사 선임 안건 역시 주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주주제안은 모두 부결됐지만 이번 주총은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IS

S와 글래스루이스 등 해외 자문사들이 팰리서 측 안건에 지지 입장을 보이면서 LG화학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요구 역시 시장의 적지 않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LG화학은 권고적 주주제안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내 법령과

도입 사례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정관에 반영할 경우 운영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임독립이사 제도에 대해서도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만큼 별도 제도 도입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LG 에너지솔루션 지분 처분과 자사주 매입·소각 역시 기존에 제시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LG화학은 주총에서 제기된 주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동춘 LG화학 사장은 주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주총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와 논의한 뒤 방향이 정해지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고 했다.

/원관희 기자 wkh@

## 삼성전자, 14.5조 규모 자사주 소각

주주가치 제고 의지 재확인

삼성전자가 약 14조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며 주주환원 정책 이행에 나섰다. 지난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예정대로 소각하면서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재확인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보통주 7335만9314주와 우선주 1360만3461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소각 예정 금액은 총 14조5800억원 규모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4월 2일이다. 이번 소각은 지난해 회사가 매입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과 주당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해 11월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1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순차적으로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해당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회사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자본금 감소 없이 발행주식 수만 줄여 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상대적 지분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업계는 이번 자사주 소각이 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과 맞물려 주주친화 정책 강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실적 개선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주환원 실행이 투자심리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한화, 美 군수지원함 설계 사업 참여

현지 조선소 기반 함정사업 수행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디펜스USA가 미국의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 사업에 참여한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기반으로 미국 해군 함정 사업을 수행하는 첫 사례다.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디펜스USA는 함정·특수선 설계 전문업체 VARD(Vard Marine US, Inc)와 미국 해군의 차세대군수지원함(NGLS) 개념설계사업 협력 계약을 30일(현지시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 양사는 NGLS 개념설

계의 주계약자인 VARD와 협력해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신규 플랫폼에 대한 개념설계와 개선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산 용이성 검토, 상선 건조 공법 적용, 생산 비용 분석도 지원한다. 기능설계 계획과 특수 연구 수행을 위한 옵션도 계약에 포함됐다.

NGLS는 기존보다 소형화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연료와 물자 보급, 재무장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이다. 이미 검증된 상용 기술을 적용해 비용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7년 1분기 내 완료될 예정이다.

한화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이

후 미국 해군 사업을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그룹은 2024년 12월 한화필리조선소 출범 이후 생산 역량 강화와 현지 인력 확충 등을 위해 2억달러 이상을 투자해왔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한화그룹의 미국 내 조선·방산 사업 확대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톰 앤더슨 한화디펜스USA 조선사업 부문 사장은 “한화는 VARD와 협력해 미국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의 설계 과정에 참여하게 돼 자랑스롭다”며 “이번 수주는 다양한 해양 작전환경에 배치된 미군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해군이 필요로 하는 함정을 건조하는 데 있어 한화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조선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 삼성전자 “빅스비로 AI 가전 관리하세요”

AI 가전 소프트웨어 고도화

삼성전자가 자연스러운 대화와 추론까지 가능한 똑똑해진 ‘빅스비’를 AI 가전에 적용해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고도화된 인공지능(AI) 비서 ‘빅스비’를 자사 AI 가전에 본격 적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업그레이드된 AI 기능은 2026년형 패밀리허브와 에어컨, 로봇청소기, 정수기, 7형 스크린이 탑재된 세탁기 신제품에 적용됐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빅스비는 정해진 명령어 없이도 자연스러운 일상 대

화를 이해하고 상황에 따른 추론과 판단까지 수행한다.

사용자는 빅스비를 통해 손쉽게 가전 제품 자동화 설정도 할 수 있다. 특정 시간이나 요일, 날씨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춰 기기를 제어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전 관리와 문제 해결을 돕는 ‘기기 Q&A’ 기능이 강화됐다. 제품 사용법을 질문하면 음성 답변을 제공하며, 스크린 이탤패된 가전의 경우 안내 영상까지 함께 지원해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삼성전자는 AI 가전이 집안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고도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 HMM, '부산 본사이전' 논란 확산 임시주총 앞두고 노조 총파업 예고

정관변경안 의결... 내달 8일 표결  
최대주주 70% 지분에 가결 가능성  
서울 영업·금융망 약화 우려에 반발  
화주 점점 축소 우려에 물류 차질  
민영화 차질 우려... "기업가치 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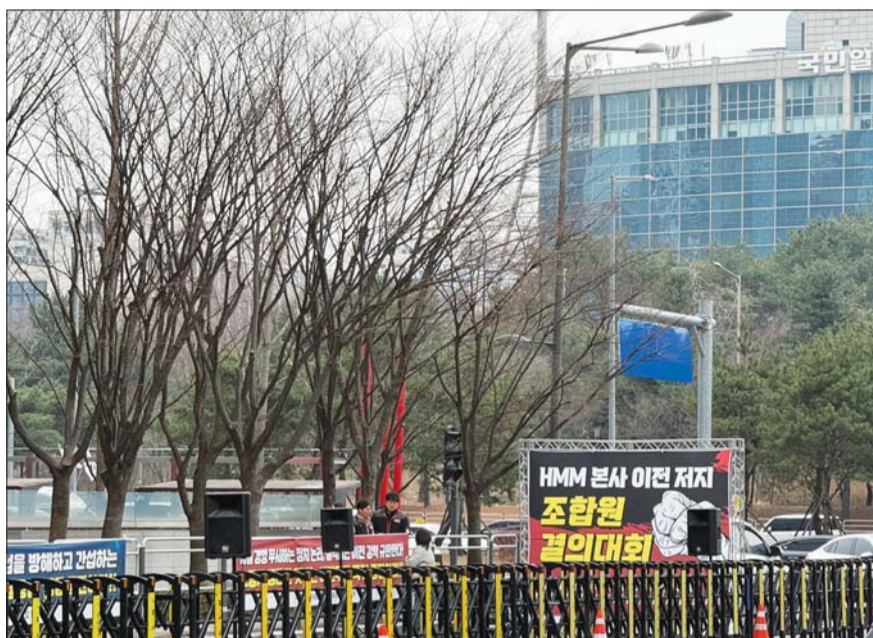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 본사 부산 이전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노사 갈등이 전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으며 해운업계 전반에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에 노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강경 투쟁에 나서 해운업계와 공급망 전반에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31일 HMM노조에 따르면 HMM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정관 변경의 건,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을 의결했다. HMM 정관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이다.

오는 5월8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HMM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35.42%)과 한국해양진흥공사(35.08%)가 7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부산 이전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는 분석이다.

HMM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부산으로 본사 이전이



HMM 육상노조원들이 지난 3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HMM 본사에서 '본사 이전 저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동북아 물류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이전할 경우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일단 HMM은 다른 해운업계와 달리 화주 접점이 잦은 컨테이너선 사업 비중이 높아 서울을 중심으로 영업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몰린 화주와 금융 네트워크의 물리적 단절에 따라 해운 업체로서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민영화 작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본사는 부산으

로 이전하지만 업무 기능을 분산하거나 직원들 여건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인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분을 출자했다고 본사 이전을 감행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부담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아 부산 이전 갈등이 노조의 총파업이나 인력 이탈로 이어질 경우 기업의 가치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성문 기자

yw@metroseoul.co.kr



metro

## 포스코홀딩스 "혁신·실행력으로 위기 돌파"

장인화 회장 창립 58주년 기념사

포스코홀딩스가 다음 달 1일 창립 58주년을 맞아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혁신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사진)은 31일 창립 58주년 기념사를 통해 "전 부문에서 올해 계획한 경영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기념사에서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강대국 간 패권 경쟁에 따른 보호주의 확산과 자원의 무기화, 세계 각지의 갈등과 분쟁이 그룹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어 창업 정신의 중요성도 다시 강조했다. 그는 "담대한 도전과 과업 완수를 위한 책임, 창의에 대한 신념이라는 DNA가 지금도 포스코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사업 전략 방향도 제시했다. 철강



부문에서는 본원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에너지소재사업은 우량 자원의 선제적 확보를 통해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래 산업 변화를 주도할 '넥스트코어(Next Core)' 사업을 육성해 지속성장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장 회장은 "회사가 숲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더욱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위기를 극복해온 전통 덕분"이라며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노사가 힘을 모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격변과 혼돈의 환경 속에서도 포스코정신을 시대적 소명에 맞게 새롭게 승화시켜 경영목표 달성하고 지속성장 기반 강화, 노사 화합을 실현하겠다"며 "이를 통해 그룹 가치의 퀀텀 점프를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 애경케미칼, 국내 유일 TPC 양산체제 구축

연산 1만5000톤 상업 생산 돌입

애경케미칼이 아라미드 섬유의 핵심 원료인 테레프탈로일 클로라이드(Terephthaloyl Chloride·TPC) 양산에 돌입하며 스페셜티 사업 강화에 나선다. 국내 유일의 TPC 독자 생산 체제를 바탕으로 고기능 소재 시장 공략과 공급망 안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애경케미칼은 TPC 양산설비를 준공하고 상업 생산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연산 1만5000톤 규모의 양산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에서 유일하게 TPC를 독자 생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아라미드는 강철보다 가볍고 강도가 높으면서도 섭씨 500도에서도 불에 타지 않는 내열성을 갖춘 고기능 소재다. 자동차 타이어코드와 5G 광케이블,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아라미드 섬유 시장 성장과 함께 핵심 원료인 TPC 수요도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애경케미칼 TPC 양산설비. /애경케미칼

그동안 국내 아라미드 섬유 업체들은 TPC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다. 수입 제품은 운송 과정에서 고형화돼 재가열과 용해 공정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시간과 에너지, 비용 부담이 뒤따랐다. 반면 애경케미칼이 국내에서 생산한 TPC를 액상 형태로 공급하면 재용해 공정이 필요 없어 원가 절감과 생산 효율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생산 기반 구축으로 물류 리스크를 줄이고 환율과 운송비 변동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관희 기자 wkh@

## 중기부, K-뷰티 해외 경쟁력 강화 원팀가동

지자체 공모 통합클러스터 시범운영

K-뷰티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정부 '원팀'이 가동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장품 수출 거점(K-뷰티 통합 클러스터) 육성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K-뷰티 수출 거점은 국내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접점지 등에 K-뷰티 지원 정책을 공간·정책적으로 결합해 글로벌 K-뷰티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된 K-뷰티 수출 거점은 관계부처

및 기업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방향 및 지원전략 등을 마련해 왔다.

올해는 지방정부가 신청한 2개 지역 이내를 선정해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2030년까지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정 지역을 K-뷰티 초기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초기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핵심 상권에 체험 공간, 바이어 및 투자자의 상담 공간을 구축해 중소·인디 브랜드 등의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

/김승호 기자 bada@

## 한국엔컴퍼니, 각자대표 체제로 경영 재편

김준현 대표 선임, 경영·사업 분리  
오너 공백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 강화

한국엔컴퍼니가 각자대표 체제를 도입하며 조현범 회장의 오너 공백 이후 경영 체제 재편에 나선다.

한국엔컴퍼니는 김준현 경영총괄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박종호 사장 단독 대표 체제에서 벗어나 경영과 사업을 분리한 이원화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이번 체제 변화는 총수인 조현범 회장이 황령·배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한국엔컴퍼니는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수행하는 경영총괄과 사업형 지주회

사로서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총괄로 조직이 구분돼 있다.

한국엔컴퍼니는 이번 인사로 경영총괄과 사업총괄이 각자의 전문 영역에 집중하는 각자대표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영총괄은 그룹 전략, 자본 효율, 거버넌스, 자회사 가치 제고를 담당하고 사업총괄은 배터리 사업 등 본원 경쟁력과 수익성 제고에 집중해 사업형 지주회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구조다.

김 신임 대표이사가 담당하는 경영총괄은 ▲그룹 중장기 성장 전략 수립 및 실행 ▲그룹 포트폴리오 가치 제고 ▲재무 건전성 및 자본 효율성 강화 ▲주주 가치 선순환 구조 정착 ▲전문경영인 중심 거버넌스 고도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삼일회계법인이서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CJ(주)재경실장 및 사업관리실장, CJ제일제당(주)경영지원실장 등을 역임하며 재무, 전략, 사업관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2025년부터 한국엔컴퍼니 경영총괄(부사장)을 맡아 지주부문 운영과 중장기 과제 추진을 총괄해 왔다.

한국엔컴퍼니 관계자는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본업 경쟁력 강화, 자회사 가치 제고, 지속 가능한 주주환원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김준현 각자대표이사는 재무·전략 역량과 대규모 조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의 중장기 성장 기반과 전문경영인 중심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양성문 기자 ysw@

## AI 드론으로 재고·설비 관리 고도화

한일시멘트 산업용 드론 도입

한일시멘트가 인공지능(AI) 탑재 드론을 도입해 재고 관리 및 설비 점검에 활용한다. 31일 한일시멘트에 따르면 충북 단양공장엔 최근 산업용 드론을 도입하고 드론 운영을 위해 직원 10명이 조종

자격을 취득했다.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작업에 본격 투입한다.

이번에 도입한 드론에는 AI소프트웨어가 탑재돼 있어 공간을 인식해 3D지도로 변환한다.

이 기능을 바탕으로 좁은 실내 공간도 충돌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으며

창고 안에 쌓여있는 재고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드론 활용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 확보다. 먼지가 많고 좁은 설비 내부 점검 시 작업자 대신 드론을 투입해 질식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높은 곳에 위치한 배관의 두께를 측정 후 부식 혹은 마모상태를 판단할 수 있어 추락사고 위험없이 설비를 관리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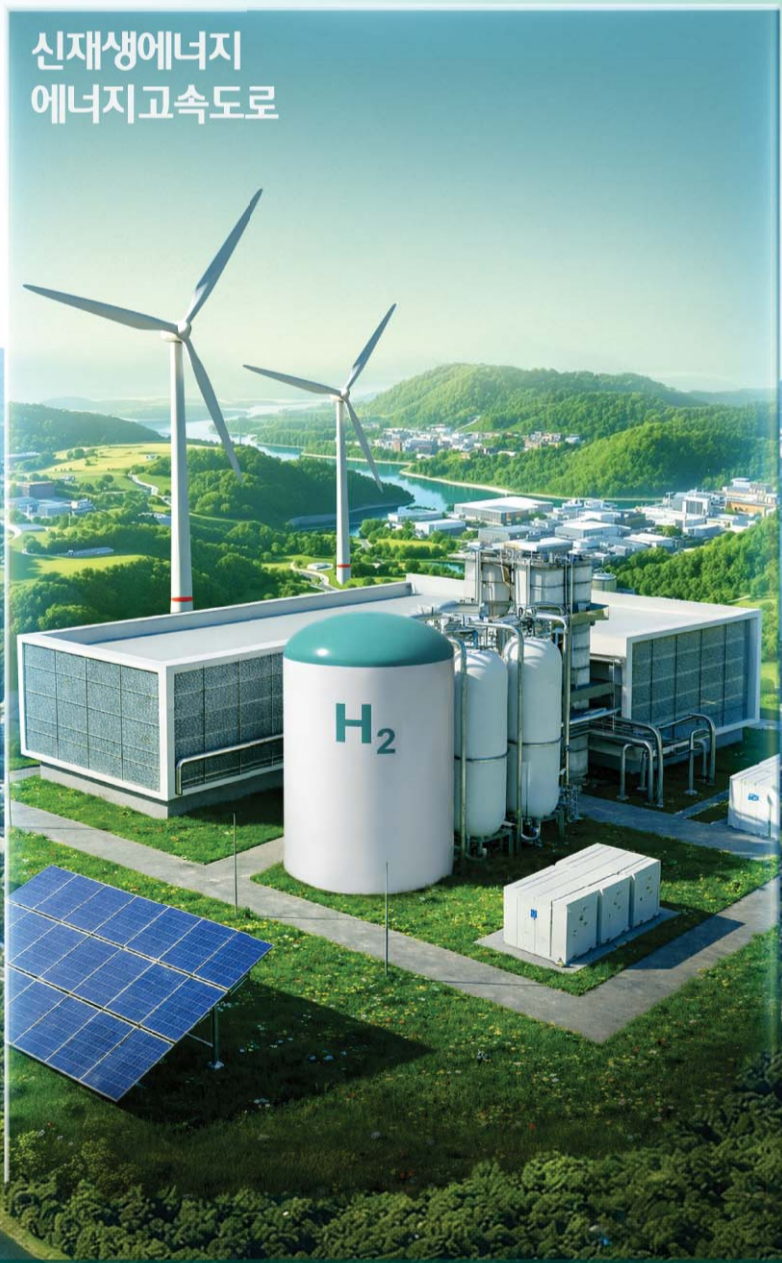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산업의 성장이 이어지도록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
- 핵심 성장 산업 지원·K-밸류체인 강화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올해 키워드는 'AX'... 데이터센터 중심 인프라 투자 단행

(인공지능 전환)

## 통신3사 주주총회 마무리

SKT 자본준비금 중 1조7000억 이익잉여금 전환해 비과세 배당 전역에 1GW 초거대 AIDC 구축

KT 'AX 플랫폼 컴퍼니'로 진화 2500억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통신 3사가 2026년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마무리하며 인공지능 전환(AI)과 주주 가치 제고를 향한 사활을 건 행보를 보였다. 이번 주총은 단순한 연례행사를 넘어 통신 3사가 전통적인 통신 사업자의 틀을 깨고 '글로벌 AI 기업'이자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고 공식 선언해 통신3사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일제히 인공지능 전환(AI)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과 함께 데이터센터 중심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을 구체화했다.

◆SKT, 금융 혁신으로 주주 환원 극대화 AI DC 허브 구축

SK텔레콤은 정재현 최고경영자(CE



통신 3사가 지난해 AIDC(AI Data Center) 사업을 통해 1.9조 원을 벌어들였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O) 체제를 공식화하며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주총에서 가장 과격적이었던 대목은 자본준비금 중 1조70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마련한 '비과세 배당'의 근거다. 이는 주주들이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감액 배당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실질적인 배당 상향 효과를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정 CEO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사업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역에 1GW 이상의 초거대 AI 데이터센터(DC) 인프라를 구축해 아시아 최대 AI DC 허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재확인했

다. 정 CEO는 최근 40% 선이 무너진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에 대해 알뜰폰(MVNO) 증가의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올해는 다시 순증으로 전환하여 연말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엔트로픽 등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단순한 통신망 제공자가 아닌 AI 인프라 사업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KT, '정통 KT맨' 박윤영 대표의 AX 플랫폼 컴퍼니 비전

KT는 30년 넘게 현장을 누빈 박윤영 신임 대표 체제를 공식 출범시키며 책임 경영의 깃발을 올렸다. 박 대표는 취

임 서신을 통해 KT를 네트워크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AI 시대를 선도하는 'AX 플랫폼 컴퍼니'로 진화시키겠다는 비전을 천명했다. 그는 고객 신뢰를 위한 네트워크 안정성과 정보 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한편, B2B와 B2C 전 영역에서 실질적인 AI 혁신 성과를 내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주주 환원을 위해 약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으나, 주총 현장에서는 거버넌스 쇄신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주주들은 과거 이사회의 책임론과 사외이사 자격 논란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으며, 박 대표는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조직 슬림화와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내부 전문가 출신인 만큼 조직의 아픈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고 경영 정상화와 미래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LG U+, DBO 사업 진출과 '원LG' 시너지를 통한 인프라 혁신

LG유플러스는 흥범식 사장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DBO)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했다.

특히 이번 주총에서는 정관 변경을

통해 DBO 사업을 목적 사항에 추가하며 고부가가치 중심의 B2B 및 AX 사업 확장을 공식화한 점이 눈에 띈다. 흥 사장은 데이터센터의 견조한 성장을 바탕으로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가속화하고, 에이전틱 AI 컨택센터(AICC) 등 신사업 성장을 통해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LG U+ 고부가가치 B2B·AX 확장 파주 AIDC 거점으로 '원LG' 시너지

특히 축구장 9개 크기에 달하는 파주 AIDC를 거점으로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그룹 계열사의 역량을 결집한 '원LG' 시너지를 강조했다. 차세대 액체냉각 솔루션과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기술을 융합해 최첨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가입자 식별 정보(IMSI) 관리 허점에 대한 보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달 예정된 유심 무상 교체와 신규 시스템 적용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흥 사장 체제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 생성형 AI 이용률 44.5%... 전년비 11.2%p↑

과거부 '지자체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인터넷 이용률 95%... 주 평균 21.6시간 챗GPT 사용 1위... AI 인식 '긍정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1일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 환경과 행태, 주요 서비스 활용 현황을 담은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이용 목적과 만족도, 유료 구독 여부 등을 새롭게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99.98%, 만 3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95.0%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의 95.2%는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며, 주 평균 이용 시간은 21.6시간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97.8%로 가장 높고 전남이 91.1%로 가장 낮았다.

서비스 이용 행태를 보면 인터넷 이용자의 98.0%가 인스턴트 메시지를 사용

하고 있으며, 카카오톡이 98.0%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다.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은 96.3%로, 주 평균 이용 시간은 7.9시간으로 나타났다.

AI서비스 경험률은 2021년 32.4%에서 2025년 67.0%로 꾸준히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가사 지원 로봇과 IoT 가전 등 주거 편의 분야가 35.9%로 가장 높았고, 교통(25.6%), 커뮤니케이션·학교(20.9%), 교육·학습(19.1%) 순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이용 경험은 44.5%로 전년 대비 11.2%포인트 증가했다. 이용 서비스는 챗GPT(41.8%), 제미니(9.8%), 코파일럿(2.2%), 클로바 X(2.0%) 순이었다. 유료 구독 비율은 7.9%로, 챗지피티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의 생성형 AI 경험률이 71.9%로 가장 높았으며, 유료 구독률은 전문·관리직이 20.6%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 경험률은 세종(53.2%), 대전(53.1%), 서울(52.8%) 순으로 높았고,

유료 구독률은 서울(11.4%), 경기(9.9%), 강원(9.1%) 순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미이용자의 절반 가량은 '관심 또는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청소년과 20대는 필요성 부족을 주요 이유로 꼽은 반면, 고령층에서는 이용 방법에 대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I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응답자의 66.8%는 AI서비스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공정성에 대해서는 57%, 결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54.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휴대형 정보통신기기 보유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게임기, 웨어러블 기기 보유율은 증가한 반면, 일반 이동전화 보유율은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만2671가구, 만 3세 이상 가구원 5만7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서현 기자



TGS2025 현장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도원암귀 PD.

/최빛나 기자

## 컴투스, 日 애니 IP로 글로벌 시장 공략

도원암귀·가치아쿠타·A랭크 파티 장르 차별화... 플랫폼 확장 병행도

컴투스가 일본 애니메이션 IP 기반 신작 3종을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 전략을 본격화했다. 자체 IP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검증된 외부 IP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움직임이다.

31일 컴투스가 내놓은 카드는 '도원암귀 크립스 인페르노', '가치아쿠타: 더 게임', 'A랭크 파티' 등 3종이다. 이들 타이틀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애니메 재팬 2026'에 출품되며 현지 이용자와의 접점을 넓혔다. 단순 신작 공개를 넘어 일본 시장을 거점으로 글로벌 확장

하는 전략적 행보로 읽힌다.

라인업 구성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도원암귀 크립스 인페르노'는 턴제 RPG, '가치아쿠타'는 액션 RPG, 'A랭크 파티'는 스토리 중심 판타지 장르로 각각 차별화했다. 모바일과 PC·콘솔을 아우르는 플랫폼 확장도 병행하며 이용자 접점을 넓히는 구조다.

특히 가장 먼저 출시되는 '도원암귀 크립스 인페르노'는 올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한다. 원작은 글로벌 OTT와 출판 시장에서 흥행을 입증한 IP로, 초기 팬덤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컴투스는 일본 법인을 중심으로 현지화 작업을 진행하며 시장 안착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 네이버 메일, 6개월 이상 미사용 시 '차단'

방치 계정 악용, 보안위협 차단

네이버는 일정 기간 로그인하지 않은 네이버 메일 계정은 보호 조치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31일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가 6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정을 '휴면 상태'로 전환하고 메일 수·발신 등 주요 기능을 제한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장기 방치된 계정을 악용한 스팸, 해킹 등

보안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휴면 계정으로 전환되면 기존 메일 데이터는 일정 기간 보관되지만, 이후 추가 이용이 없을 경우 계정 정보와 메일이 삭제될 수 있다. 특히 업무용이나 인증 수단으로 활용되는 계정의 경우, 장기 미접속 시 중요한 정보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보안 강화 흐름 속에서 마련됐다. 실

제로장기 미사용 계정은 해킹 시도나 불법 광고 발송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요 플랫폼들이 유사한 관리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네이버는 휴면 전환 전 사전 안내를 통해 이용자에게 로그인 유도 알림을 제공하고 있으며, 로그인만으로도 정상 계정으로 복구가 가능하다. 다만 장기 방치될 경우 복구가 제한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메일 계정이 각종 서비스 가입과 인증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빛나 기자

## SKT, vRAN·AI-RAN 기술 담은 백서 발간

(가상화 기지국)

日 이통사 'NTT도코모'와 협력

SK텔레콤은 일본 이동통신사 NTT도코모와 가상화 기지국(vRAN) 진화와 AI-RAN 구현을 위한 기술 요건과 발전 방향을 담은 백서를 공동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양사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vRAN과 AI-RAN의 기술 요구사항과 구현 방식, 도입 효과 등을 정리한 것이다. 이동통신사와 장비 제조사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관련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서현 기자

# 터보퀀트 한 방에 반도체주 ‘흔들’... 삼성전·하이닉스 급락

구글, 신개념 알고리즘 기술 공개  
삼성전·하이닉스 주가 약 5~7% 하락  
일부에선 “상용화까지 시기상조”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이달 초 반도체 관련주에 투자했는데  
...”

개미 투자자들에게 ‘지옥의 4일’이었다. 삼성전자 20만원이 무너진 지난달 20일 이후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6% 마이너스(-)가 났다”며 “하루 동안에만 한 달 치 월급이 날아가니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허탈해했다. 국내외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에 중점적으로 목돈을 넣어 온 박씨(31) 역시 “며칠 전부터 하루 종일 증권사 앱(애플리케이션)에서 5% 이상 떨어졌다는 알림이 쉴 새 없이 오고 있다. 심란해서 일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앱을 안 보려고 하는데도 계속 화면을 보게 돼, 증권사 앱을 지울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반도체에 투자한 개미들의 얼굴에 주름이 한가득이다. 구글이 대규모 언어 모델(LLM) 데이터를 기존보다 적은 자원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신개념 알고리즘 기술을 공개하자, 세계 주요



ChatGPT로 생성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관련 이미지.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어서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5.16% 하락한 16만7200원, SK하이닉스는 7.56% 급락한 80만7000원에 마감했다. 3월 한달 동안 삼성전자는 22.77%, SK하이닉스는 23.94%씩 급락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것은 미국 구글이 공개한 새 알고리즘 기술 ‘터보퀀트’ 영향이 컸다. 구글 리서치가 25일(현지 시간) 발표한 터보퀀트는 AI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AI 모델은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메모리(기억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반면 구글 리서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터보퀀

트를 쓰면 필요한 메모리 양이 기존보다 6분의 1로 줄어든다. 처리 속도도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H100’보다 최대 8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가 거의 손실되지 않게 압축해 처리하는 기술을 적용한 덕분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AI 기술의 효율성 증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 마이크론, 샌디스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주 전반에 걸쳐 급락세를 연출했다”며 “당분간 관련 이슈를 둘러싼 금·부정 공방전이 전개될 수 있고, 반도체주 급락을 초래했던 터보퀀트 사태 여진의 진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터보퀀트 충격은 단기 이슈로 그치지 않고 있다. 해당 기술이 반도체 수요를 감소시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조기에 꺾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장의 불안도 커지는 모습이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23% 떨어졌으며, 마이크론은 9.8% 급락하며 반도체주 약세를 지속했다.

반면 터보퀀트 연구 결과 공개에 따

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하락세가 지나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글이 아직 연구 논문을 통한 결과를 공개한 것일 뿐 실제 상용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번스역설’을 근거로 메모리 효율 증가는 비용 감소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시장 확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구글 터보퀀트와 같은 저비용 AI 기술은 AI 사용 장벽을 낮추고, 전체 수요를 폭발적으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며 “효율 개선이 오히려 총 수요를 확대시키는 리바운드 효과의 경로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결국 구글 터보퀀트의 최대 수혜도 반도체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장문영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터보퀀트 기술은 메모리·연산 효율을 동시에 개선해 AI 활용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AI 적용 범위 확대, 사용량 증가를 통해 오히려 메모리 수요 확대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은퇴자금 투자 대세는 TDF... 8년 만에 18배 성장

지난해 말 TDF 순자산 25.6조  
TDF 자산 95.3%가 연금 자금

생애주기펀드(TDF)가 퇴직연금 시장의 핵심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TDF 순자산은 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2018년 1조4000억원 수준에서 출발해 불과 8년 만에 18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이 같은 성장의 중심에는 퇴직연금이 있다. 전체 TDF 자산 중 연금 비중은 95.3%에 달하며, 이 가운데 퇴직연금이 83.8%를 차지한다. 개인연금 비중(11.5%)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TDF가 사실상 퇴직연금의 대표 운용수

<연도별 TDF 순자산 현황> (단위:조원)

연도	순자산	성장률(%)
2018년말	1.4	
2019년말	3.3	135.7%
2020년말	5.2	57.6%
2021년말	10.9	109.6%
2022년말	10.4	-4.6%
2023년말	12.1	16.3%
2024년말	16.5	36.4%
2025년말	25.6	55.2%

단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 등 위험자산과 채권 등 안전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구조다. 초기에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정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 같은 구조는 퇴직연금과의 궁합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퇴직연금은 장기 투자 성격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원리금보장 상품에 편중돼 낮은 수익률에 머물러 왔다. 반면 TDF는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실제 성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5년 TDF 평균 수익률은 13.7%로, 같은 기간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6.5%)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 디폴트옵션 수익률(3.7%)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크다.

이처럼 높은 성과와 구조적 장점이 맞물리면서 퇴직연금 자금이 TDF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적격 TDF의 경우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어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TDF의 성장이 단순한 상품 확대를 넘어 연금 투자 패러다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 예치형 상품 중심에서 벗어나, 글로벌 자산배분 기반의 투자형 연금으로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TDF는 노후 대비를 위한 중장기 투자상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운용 환경을 조성해 연금 투자자의 선택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2월 기업 자금조달 증가... IPO·금융채가 견인

전체 공모 발행액 19조2497억  
주식 발행 3415억으로 215.6% ↑

지난 2월 기업들의 직접금융 조달 규모가 확대되며 주식과 회사채 발행이 전월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 기업공개(IPO) 시장 회복과 금융채 발행 확대가 전체 자금조달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2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주식·회사채 공모발행액은 19조2497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5057억원(8.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식 발행

은 3415억원, 회사채는 18조9082억원을 기록했다.

주식 발행은 큰 폭으로 늘었다. 총 7건, 3415억원으로 전월 대비 215.6% 증가했다. IPO는 코스피 1건, 코스닥 2건 등 총 3건, 2908억원으로 집계되며 전월 대비 265.8% 늘었다. 유상증자 역시 4건, 507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모두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

회사채 발행은 292건, 18조9082억원으로 전월 대비 7.2% 증가했다. 금융채가 13조3670억원으로 37.6% 급증하며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은행채

와 금융지주채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일반회사채는 5조1137억원으로 28.7% 감소했다. 자금 용도별로는 차환 목적이 3조8871억원으로 76.0%를 차지해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차입금 상환 중심 발행이 이어졌다. 신용등급별로는 AA등급 이상 우량물이 6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A등급 30.8%, BBB등급 이하 3.6% 순이었다. 만기는 중기채 비중이 96.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산유동화증권(ABS)도 4275억원으로 전월 대비 42.6% 감소했다. 이에

따라 2월 말 기준 전체 회사채 잔액은 748조4481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4104억원(0.6%) 줄었다. 일반회사채는 순상환 흐름이 이어졌다.

단기 자금조달 수요는 여전히 견조했다.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발행액은 159조5722억원으로 전월 대비 3.1% 증가했다. CP 발행은 감소했지만 단기사채는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발행 확대를 이끌었다. 특히 단기사채는 전년 동월 대비 47.6% 급증했다.

2월 말 기준 CP 잔액은 245조3983억원, 단기사채 잔액은 86조5256억원으로 각각 전월 대비 증가했다. 기업들의 단기 유동성 확보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허정윤 기자

## 한양증권 새 CI 담은 ‘비HY인드’

한양증권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신규 CI(Corporate Identity)를 주제로 한 브랜드 필름 ‘비HY인드’를 오픈했다.

한양증권은 브랜드 리뉴얼 과정을 담은 콘텐츠 시리즈인 ‘비HY인드’ 두편을 공식 유튜브 채널 ‘하이굿 by 한양증권’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브랜드 필름은 브랜드 전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스토리텔링 영상과, CI 디자인의 배경과 의도를 담은 영상으로 구성됐다.

두 편 모두 실제 브랜드 전략과 디자인 관점을 바탕으로 내레이션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변화의 배경과 방향성을 명확하고 일관된 언어로 전달한다.

또한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제작 과정을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풀어내며, 브랜드가 지향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담아냈다.

브랜드 스토리텔링 영상에서는 한양증권이 추진해온 변화의 배경과 성과, 그리고 향후 성장 전략이 담겼다. 특히 ‘왜 지금 변화를 선택했는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새롭게 가져가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브랜드 개편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신규 CI의 핵심인 ‘HY’ 심볼은 전통과 혁신을 연결하는 한양증권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이어 브랜드 슬로건 ‘Heritage & Young’을 통해 전통 위에 빠른 실행력과 자본 효율성 중심의 경영 전략을 더하는 의미를 담았다.

비주얼텔링 영상에서는 신규 CI를 개발한 디자이너의 관점을 바탕으로, HY 심볼의 구조와 디퍼플 그라데이션 등 주요 비주얼 요소와 디자인 의도를 설명한다. /신하은 기자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주권자 국민도 행사해야”

국민 300명·사업자 30곳 이상  
무분별 고발 방지 일정 기준 설정  
경제형별 합리화도 병행 추진

남용 우려... 중대사건 한정 제한  
지방정부에 고발권 부여 검토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려면 공정위 고발을 거치도록 한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과 사업자에게 직접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사업자가 고발하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국민 300명 이상 또는 사업자 30곳 이상이 공동으로 고발할 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형사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 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불공정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업자는 위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형사 고발이 가능해진다”며 “다른 국가기관이 공정위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무분별한 고발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제도처럼 300명 이상 연서를 기준으로 삼았고, 사업자 수는 건설·제조 분야 평균 하도급 업

체 규모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경제형별 합리화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형벌을 유지하고 일반적인 영업활동 관련 불공정 행위는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규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이나 사업자에게 고발권을 부여할 경우 공소권 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경성 답합 등 중대한 사건에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 사안을 중복 조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법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는 분기별 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고 있다”며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정위가 743건

을 전달했고 중기부는 60건을 실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 조사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해외에서는 경쟁 당국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많다”며 “단순한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 의견을 들은 뒤 “전속고발제를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정부 등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30곳에 고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나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처벌 규정이 과도하게 많은 측면이 있어 경제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 한전, 제주 신규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검토

제주지역 계통관리 변전소 지정 해제  
최근 수급관리 역량 개선으로 재개  
2035년 제주 탄소중립 달성 기여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약 2년 만에 재개된다.

한국전력은 지난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발표한 ‘제주지역 계통관리 변전소 지정 해제’에 따라 제주 전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계통연계 검토를 즉각 재개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은 재생에너지 보급 급증에 따른 전력 수급 불균형과 잦은 출력제어 문제로 2024년 6월 전 지역이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되면서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제주 전력계통의 수급 관리 역량이 개선되면서 정부와 한전은 일괄적인 허가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시장 기반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2024년 6월 도입된 재생에너지



제주시 월정리 앞바다에 위치한 해상 풍력발전기의 모습. /뉴시스

입찰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과거 강제적 출력제어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급전순위에 따른 자발적 출력 감발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제도 도입 이후 강제 출력제어 없이도 계통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이번 조치에 따라 제주지역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청 건에 대해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검토할 계

획이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이번 제주 계통관리변전소 해제는 전력시장 제도 혁신과 인프라 확충이 결합된 전력계통 안정화의 대표적 성과”라며 “발전사업 허가 재개를 통해 2035년 제주 탄소중립 달성과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혁신적 실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사계절 내내 이동노동자 안전 강화”

노사발전재단 ‘안전이음 프로젝트’  
계절별 위험요인 반영 교육 등 진행

노사발전재단은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2026년 안전이음 프로젝트2 사계(四季)’를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달·택배·감정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현장 안전 인식 확산을 위해 2025년부터 진행해왔다.

올해는 ‘사계절 모두 안전해, 안전은 완전해’를 주제로 봄·여름·가을·겨울 연중 안전 지원을 이어간다.

재단은 계절별 노동현장의 위험요인을 반영해 안전교육, 안전용품 지원,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하고, 대국민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계절별 주요 추진 내용은 ▲봄 ‘창밖에는 봄이, 일터에는 안전이’ ▲여름 ‘땀 뻘뻘, 안전엔 느낌표’ ▲가을 ‘Fall in 안전, 가을 안전에 빠지다’ ▲겨울 ‘온(溫) 세상 안전’ 등이다.

첫 번째 ‘봄’ 프로젝트는 이날 김포와 부산에서 동시에 시작된다.

김포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쿠팡이츠 서비스,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등과 협

업해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지원한다.

부산 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배달라이더들이 참여하는 ‘라이더 안전지킴이’ 결성대회가 열린다.

라이더 안전지킴이는 싱크홀 등 파손된 시설물을 신고하고, 난폭·음주운전 등 위험행위를 제보하는 도로위 안전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완전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노동현장에서 사계절 내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농식품부, 새만금서 ‘조사료 종자’ 생산

106ha 규모 종자생산단지 조성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만금농생명용지 4공구에 ‘조사료(건초·짚 등) 종자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조사료 종자의 자급률 제고와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국내 조사료 종자 수입 의존율은 87.7%에 달한다.

이번에 조성되는 종자생산단지는 총 106헥타르(ha) 규모로, 축구장 약 150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생산단지는 약 50ha 내외 2개 구역으로 나뉘어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생산단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종자업체로 등록된 농업법인에 최장 10년간 임대된다. 청보리·귀리·트리티케일 등

조사료 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보급하는 특화단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임대 대상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오는 4월 1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를 선발한 이후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2개 법인을 선정한다.

선정된 법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오는 6월부터 영농을 시작할 수 있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식량안보와 미래 농생명산업의 중요 거점으로 활용될 계획”이라며 “식량안보 확립의 일환으로서 조사료 종자생산단지 조성사업이 국내 조사료 종자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기후부, 전기차 충전보조금 부당집행 적발

3주간 총 100여건 신고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행위 적발에 나섰다.

기후부는 최근 ‘전기차 충전기 국고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를 3주간 운영한 결과 총 1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신고센터 운영이 시작된 3월 6~27일 기간 접수된 신고 기준이다. 중복 신고는 제외했다. 주요 신고 내용은 정상 충전기 무단 철거 및 신규 설치, 신규 설치 후 요금 인상, 과장 광고 등이었다.

기후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단·반복 민원 단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주민 동의철차 누락 등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전기차 충전시설. /뉴시스

LOTTERIA™ × 신대방 온정돈까스

# 디지털 매운 돈까스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WARNING

환자,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등 매운맛 섭취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ARNING



# JTI코리아, '플룸 아우라' 공개... 전자담배 시장 판 흔든다

韓 소비자 인사이트 기반 제품 개발 '맛·경험·디자인' 핵심 경쟁력 제시 완전 충전시 최대 27개 스틱 사용

JTI코리아가 권력형 전자담배 시장 판을 다시 흔들 승부수를 던졌다. '맛·스마트·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운 이번 신제품이 KT&G '텔'과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가 장악한 국내 양강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JTI코리아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세대 권력형 전자담배 디바이스 '플룸 아우라(Ploom AURA)'를 선보였다.

이날 무대에 오른 이리나 리 사장과 프레데릭 에스트리포 마케팅 디렉터는 '플룸 아우라'의 핵심 경쟁력으로 '맛, 스마트한 사용 경험,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제시했다.

제품에는 JTI의 독자 가열 엔진 '스마트 히트플로우(Smart HeatFlow™)'가 적용돼 가열 온도를 정밀 제어



JTI코리아 이리나 리 사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플룸 아우라'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함으로써 풍미의 균일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전용 앱을 통해 스탠다드·스트롱·롱·배터리 세이버 등 4가지 히팅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롱 모드는 최대 6분 사용, 배터리 세이버 모드는 완전 충전시 최대 27개 스틱 사용이 가능하다.

디자인 역시 슬림·경량화에 초점을 맞췄다. 곡선형 바디와 매끄러운 마감으로 그립감과 휴대성을 개선했으며, 전면 패널과 백 커버 등 액세서리를 할



모델들이 '플룸 아우라'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JTI코리아

용해 500가지 이상의 커스터마이징 조합을 구현할 수 있다. 색상은 제트 블랙, 로즈 골드, 네이비 블루, 루나 실버 4종이다. 정상가는 5만9000원이며, 공식 웹사이트 가입 시 3만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JTI코리아는 이번 신제품이 그간 축적한 '소비자 인사이트'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리나 리 사장은 "한국 소비자들이 권력형 전자담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

기는 요소가 '맛'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소비자 인사이트를 제품 개발에 반영한 결과물이 바로 이번 플룸 아우라"라고 말했다.

프레데릭 에스트리포 디렉터는 "일본 소비자 대상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플룸 아우라는 맛 평가 1위를 기록했다"며 "풍부한 맛과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출시는 글로벌 담배기업 JTI가 국내 시장 반등을 노리고 내놓은 전략적

품으로 해석된다. JTI코리아는 2019년 '플룸테크'로 국내 전자담배 시장에 처음 진입했으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고, 2021년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2024년 10월 '플룸 X 어드밴스드'로 재진입했지만, 시장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리나 리 사장은 "지난 18개월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값진 학습의 시간이었다"며 "그 시간 동안에도 JTI코리아는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왔고, 우상향을 그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차원에서는 전년 대비 38.6%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2028년까지 주요 시장에서 전자담배 점유율 1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전세계 네 번째로 큰 전자담배 시장이자 권력형 전자담배 비중이 전체 담배 시장의 약 20%에 달하는 전략 시장이라는 점에서 '플룸 아우라'가 반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CJ프레시웨이, '큐레이츠' 론칭... 키친리스 사업 본격화

프리미엄 간편식에 음료 서비스 결합 고객 취향과 상황에 맞는 한 끼 제안

CJ프레시웨이가 큐레이션 기반 간편식 브랜드 '큐레이츠(CUREATS)'를 론칭하며 키친리스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수제 간편식 등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장 환경에서 간편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식사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CJ프레시웨이는 최근 프리미엄 간편식과 음료 서비스를 결합한 테이크아웃 브랜드 '큐레이츠(CUREATS)'를 선보였다. 앞서 3월 진행된 CJ프레시웨이의 B2B 식품 박람회 '푸드 솔루션 페어 2026'에서 처음 공개된 큐레이츠는 '선별하다'는 의미의 '큐레이트(Curate)'와 '음식'을 뜻하는 '이즈(Eats)'를 결합해



푸드 솔루션 페어 2026에서 소개된 큐레이츠 홍보 부스.

/CJ프레시웨이

고객의 취향과 상황에 맞는 한 끼를 제안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큐레이츠는 매일 신선하게 제조하는 수제 간편식에 음료 서비스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샌드위치와 샐러드 등 간편식을 중심으로 상품존에서는 건강, 계절

성, 페어링, 데일리 루틴 등 라이프스타일 테마에 맞춰 메뉴를 구성한다. 베이커리와 브랜드 콜라보 상품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카페존에서는 스페셜티 원두를 활용한 커피와 유명 카페 브랜드 협업 메뉴

를 운영한다. 여기에 블렌딩티와 시즌 한정 등 다양한 티 라인업도 갖춰 선택의 폭을 넓혔다

CJ프레시웨이는 4월 중 상암 본사에 큐레이츠를 먼저 선보인 뒤 향후 자사가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오피스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별도 조리 설비에 대한 부담은 낮추면서도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 중심의 운영 모델로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서 간편하게 수준 높은 식사를 즐기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매일을 채우는 제대로 된 한 끼 큐레이션"이라는 슬로건 아래 큐레이츠만의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 취향을 만족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백화점 노원점 레피세리 전경. /롯데쇼핑

## 롯데백화점 노원점 '레피세리' 오픈

롯데백화점이 노원점 지하 1층에 550평 규모의 동북 상권 최대 프리미엄 식료품점 '레피세리'를 31일 선보였다.

레피세리는 롯데의 'L'과 식료품점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에피세리(epicerie)'의 합성어로, 최고급 식자재를 취급하는 롯데백화점의 프리미엄 식료품점이다. 지난 23년 인천점에 처음으로 연 '레피세리'가 요리에 드는 수고를 줄이고 간편함을 추구하는 '키친 클로징'에 초점을 맞췄다면, 노원점 '레피세리'는 여기에 더해 '취향형 신선미식' 개념을 첫 적용한 '신선 미식 전문관'이다.

50만 배후 인구를 가진 노원의 '장보기 상권'을 겨냥해 고품격 장보기 공간으로 특화했다. 신선 식품의 구매 주기, 구매 수량, 구매 우선순위 등 고객 구매 패턴을 분석해, 구매 빈도가 가장 높은 초신선 제철 및 소포장 과일은 전면 배치하는 등 동선의 앞쪽에 두고, 집에서 바로 시식이 가능한 반찬 코너는 출구 쪽에 배치하는 등 장보기 여정의 전반을 고객의 니즈에 맞게 최적화했다. 여기에 '계절의 감각'을 반영한 인테리어로 장보기 여정에 '감성 품격'도 더했다.

한편 노원점은 하반기에는 전국구 유명 맛집과 스타 셰프 협업 F&B 콘텐츠 등을 갖춘 프리미엄 푸드홀 및 디저트 전문관도 선보일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 KGC인삼공, CI 변경... "글로벌 기업 도약" 롯데칠성음료, 과실탄산주 브랜드 재정비

'하이브리드 워크' 시스템 도입

KGC인삼공사가 4월 1일부터 글로벌 도약의 의지를 담아 'KGC'로 CI(사진)를 변경한다.

창립 127주년을 맞은 KGC는 건강하고 행복한 세계인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핵심가치를 지키며, 인삼과 홍삼을 넘어 글로벌 Top Tier 종합건강식품기업으로 도약하고자 14년만에 CI를 리뉴얼 한다.

새로운 CI는 기존 형태를 유지하되 'KGC인삼공사'에서 'KGC'로 바뀐다. 신뢰감을 주는 짙은 회색 서체에 무한한 가능성을 연상시키는 KT&G 그룹 심볼 마크 씨드(Seed)를 배치했다. 신규CI는 광고, 홈페이지 등 홍보물과 제품 등에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새로운 CI 도입과 동시에 KGC는 '하이브리드 워크' 시스템도 도입한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KGC의 '하이브리드 워크' 시스템은 업무환경과 직무 특성을 고려해 근무지와 근무제도를 다각화하는 업무 형태이다. 대면 중심의 근무 관행을 비대면·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신원선 기자

순하리진 신제품 2종 출시

롯데칠성음료가 과실탄산주 브랜드를 '순하리진'으로 재정비함과 동시에 신제품 '순하리 유자진', '순하리 상그리아진'을 새롭게 선보인다.

롯데칠성음료는 과실탄산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관심에 따라 2021년 5월 출시 후 연평균 34%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순하리 레몬진'과 작년 하반기에 선보인 '순하리 자몽진'을 과실탄산주 브랜드 '순하리진'으로 통합하며 브랜드를 재정비했다.

또한, 통과일 그대로 동결 침출해 더욱 진한 과일향과 맛, 제로 슈가라는 '순하리진'의 고유의 특성을 이어감과 동시

에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신제품 2종을 새롭게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순하리 유자진은 전남 고흥산 통유자를 동결 침출해 유자의 진한 향이 특징적인 제품으로 알코올 도수는 4.5도이며 유자잎을 연상하는 녹색 바탕에 노란색 유자 열매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통과일과 통오렌지를 함께 동결 침출한 순하리 상그리아진은 와인의 풍미에 두 가지 과일의 맛이 더해진 복합적인 맛과 향의 제품으로 알코올 도수는 7도이다.

순하리 유자진, 순하리 상그리아진 모두 500ml 캔제품으로 선보이며, 할인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 ‘전략·투자 전문가’ 전면에… 한미약품그룹, 체질개선 시동

외부 전문가 중심 이사회·경영진 창업주 측 경영권 강화 포석 해석  
황상연 대표 “주주 이익 극대화”



황상연 한미약품 신입 대표

/한미약품그룹

한미약품그룹이 법조인 출신과 금융업계 인사를 이사회 전면에 배치했다.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는 ‘전략 및 리스크 관리’ 전문가를, 핵심 계열사 한미약품은 ‘투자’ 전문가를 각각 새롭게 영입하며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했다.

3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일가인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은 라데팡스파트너스라는 강력한 우군을 지주사 이사회에 진입시키며 경영권을 강화했다.

이날 서울 송파구 소재 본사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에서 김남규 라데팡스파트너스 대표가 기타비상무이사로 새롭게 선임됐다.

김남규 대표는 삼성전자 법무실 수석 변호사, 삼성에스원 준법경영팀장 등을 거친 법조인으로 행동주의 사모펀드 운용사 KCGI에서 최고전략책임자(CSO) 및 최고리스크책임자(CRO)를 역임한 ‘전략통’으로 꼽힌다.

김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합류는 기존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배치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라데팡스파트너스는 표면적으로는 송영숙·임주현·신동국·라데팡스 등으로 구성된 ‘4자 연합’ 중심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룹 창업주 일가인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동국 이사가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인사였던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4자 연합 내부에서 균열의 조짐이 있었다.

실제로 4자 연합은 이미 법적 공방에 돌입해 있다. 송영숙·임주현·킬링턴유한회사 측이 신동국 이사를 상대로 약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근 해당 소송의 첫 변론이 이뤄진 상태다. 킬링턴유한회사는 라데팡스의 특수목적 법인이다.

한미사이언스 지분 구조는 송영숙·임주현·신동국·라데팡스 등 4자 연합이 52.63%를 차지하고 있다. 신동국 이사 29.83%, 라데팡스파트너스 9.81%, 임주현 부회장 9.15%, 송영숙 회장 3.84% 순이다. 이밖에 임중훈 이사는 6.46%를 가졌다.

한미약품도 ‘뉴 한미’의 전문경영인 체제로 지배구조를 재정비했다.

같은 날 진행된 한미약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황상연 HB인베스트먼트 프라이빗에쿼티(PE)부문 대표가 한미약품 신입 사내이사로 선임됐고 주총 직후 이사회를 통해 신임 대표이사로 올라섰다. 한미약품그룹 창사 이래 최초의 외부 인사로, 정통 한미맨 중심의 내부 승진 인사 기조를 깬다.

황상연 대표는 투자 전문가다. 브레인 자산운용 대표, 증권당홀딩스 대표, 엠디온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역임하며 제약 업계에서도 경험을 쌓았다.

황상연 한미약품 신입 대표는 전문성에 기반한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황 신임 대표는 “금융권 애널리스트 시절부터 30여 년간 한미약품을 분석하고 연구해 왔다”며 “기대에는 부응하고

우려는 불식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황 신임 대표는 대주주와 전문경영인의 관계 속 ‘독립 경영’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주주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총주주 이익 극대화와 창업주인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인간 존중·가치 창조’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약품은 그룹 내 자회사로서 독립 경영의 관점을 유지하되, 지주사가 추진하는 그룹의 큰 기조에 맞춰 사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시로 상의하며 시너지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 이사와의 설전 끝에 송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박재현 대표의 연임이 불발된 사례가 있는 만큼, 업계는 황상연 체제의 연착륙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상정된 김태운 감사 위원 연임 건, 김나영 한미약품 신제품 개발본부장·채이배 전(前) 국회의원·한태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총장 등의 신규 선임 건 등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셀트리온 ‘옴리클로’, 브라질서 입찰 수주

�칭 행사 열고 인적 네트워크 강화  
임상 데이터·글로벌 처방 경험 공유



셀트리온은 중남미 최대 제약 시장인 브라질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옴리클로’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중남미 최대 제약 시장인 브라질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옴리클로’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출시 초반부터 브라질 주정부 입찰 수주에 성공하며 시장 선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론칭 행사를 통해 현지 주요 의료 관계자 대상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 것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브라질 내 알레르기·호흡기·피부과 전문 의료진과 보험사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옴리클로의 임상 데이터 ▲글로벌 처방 경험 ▲실제 진료 환경에서의 활용 가치 등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옴리클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는데, 특히 제품 처방 경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셀트리온은 이번 론칭 행사를 통해 브라질 내 영향력 있는 의료진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제품 신뢰도를 높여 향후 옴리클로 처방 확대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셀트리온 브라질 법인은 지난해 11월 옴리클로를 출시한 이후, 최근 산타카

타리나(Santa Catarina) 주정부 입찰에서 수주에 성공하는 등 공급 채널을 조기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옴리클로가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 출시돼 추가적인 입찰 성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센텔리안24,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2026’ 참가

동국제약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는 지난달 26~29일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세계 최대 뷰티 전시회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2026’에 참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센텔리안24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참가했으며 특히 올해는 브랜드 단독 부스를 운영해 글로벌 바이어와 적극 교류했다. 우선 글로벌 온라인몰인 아마존과 틱톡샵에서 각각

베스트셀러 7위, 5위 등을 기록한 ‘마데카 크림 타임 리버스’를 비롯해 브랜드 대표 제품을 선보였다.

‘마데카 크림 타임 리버스’는 5가지 특허 기술과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테카) 성분을 집약한 ‘뉴 활성-테카’가 적용된 제품이다. 유효성분 흡수 깊이 및 속도를 251% 빠르게 개선하고, 피부 3층 아래까지 전달해 준다.

이와 함께 피부 탄력을 위한 PDRN 제품군, 뷰티 디바이스 마데카 프라임 맥스 등을 소개했다. /이청하 기자

## 동아제약 ‘오쏘몰’ 3년 연속 판매 1위

동아제약은 글로벌 리서치 기업 유로 모니터 인터내셔널 조사 결과, 오쏘몰이 국내 온·오프라인 멀티비타민 시장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판매 1위를 차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전 유통 채널의 멀티비타민의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오쏘몰은 프리미엄 멀티비타민 브랜드로 국내 공식 파트너인 동아제약을 통해 2020년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이청하 기자

## 지씨셀, CAR-NK 기술특허 출원

고형암 분야로 적용 가능성 확장  
대량 생산 가능한 범용 치료제 장점

지씨셀은 고형암 치료를 대상으로 하는 면역세포치료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지씨셀의 CAR-NK 플랫폼을 기반으로, 클라우드인18.2(CLD N18.2)을 표적하도록 개발된 파이프라인이며 고형암 분야의 적용 가능성을 확장한 사례다.

클라우드인18.2는 위암, 췌장암, 식도암 등 다양한 고형암에서 발현되는 항원이다. 또 CAR-NK 치료제는 환자 본인의 세포를 사용하는 CAR-T 치료

제와 달리, 건강한 공여자의 세포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범용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NK세포의 선천 면역 특성을 갖춰 높은 안전성이 기대되며 제조 및 공급 측면에서의 효율화를 통해 치료 비용 절감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원성용 지씨셀 대표는 “이번 특허 CAR-NK 플랫폼 기반 고형암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의 연속적인 성과 중 하나”라며 “향후 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피부 회복 돕는 ‘이지에프 엑스’ 라인 출시

대용제약, 겔·세럼 등 총 6종



대용제약은 디엔코스메틱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이지유’에서 피부 장벽의 다운타임을 관리할 수 있는 ‘이지에프 엑스(사진)’ 제품군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지에프 엑스 제품군은 피부 전문관리 또는 일상 속 다양한 자극으로 손상된 피부 장벽이 정상 상태로 관리되기까지 소요되는 ‘다운타임’을 보다 쉽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지에프 엑스 라인은 대용제약의 인체 동일 구조, 고순도 DW-EGF에 전해질, 항노화 성분으로 주목받는 NAD 등을 결합한 복합 성분 ‘이지에프 엑스’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출시 제품은 겔, 세럼, 트림, 마스크, 선제품, 비비 등 총 6종이다. 대표 제품

인 ‘다운타임 오인트 겔’은 DW-EGF 성분을 국내 최대 함량인 10ppm 함유한다. 인체적용시험에서 다운타임 속도를 2배 이상 단축하는 결과가 확인됐다.

이지유 관계자는 “이지유가 새롭게 선보이는 이지에프 엑스 라인은 기존의 피부 개선을 넘어 한층 강화된 피부 장벽 케어 솔루션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대한민국 가요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대전역 앞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대한민국 1세대 원로가수 리싸이틀"이  
2026년 4월 7일(화요일)부터 매일 원로스타들의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 대한민국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고향 아줌마  
이정표 없는 거리  
고향이 좋아

매주 금요일 김상진



대머리 총각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노란샤쓰 입은 사나이

매주 월요일  
김상희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야 정말  
장미빛 스카프

매주 화요일 윤항기



철없는 아내  
청춘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매주 목요일  
차도균



아버지의 대를 잇는 가수  
차승민



매주 토요일 현 당



배호 가요제  
대상

매주 수요일  
이 호 / 이명주



사회  
탤런트 이경영

마술공연



여행사 및 단체관람  
문의 1544-3235



**오리온그룹,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 후원**

오리온그룹은 오리온재단을 통해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의 '2026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월드비전 본부에서 '오리온재단' 김부곤 사무국장,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 남상은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오리온그룹



**효성, DMZ 생태 가꾸기 그룹 차원 확대**

효성이 국립수목원·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과 함께 DMZ 및 접경지역 생태복원 협력을 그룹 차원으로 확대한다. (주)효성, 효성티앤씨(주), 효성중공업(주), 효성화학(주) 등 4개 회사는 지난 30일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국립수목원·상생협력재단과 'DMZ 및 접경지역 생태복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효성



**Sh수협은행, 코림코신탁과 부동산금융 업무협약**

Sh수협은행이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코림코자신신탁 본사에서 코림코자신신탁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금융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Sh수협은행



**카카오엔터, 창작재단 대학생 서포터즈 공식 출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카카오창작재단이 '대학생 서포터즈 2기 발대식'을 열고 2026년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카카오창작재단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포터즈는 26대1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됐으며, 연말까지 창작자와 대중을 잇는 역할을 수행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인사**

◆우주항공청 ◇과장급 △인공위성임무설계프로그램장 박성원 △지구관측위성프로그램장 김응현 △항법통신위성프로그램장 이병선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장 권지훈 △우주과학프로그램장 강현우 △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장 김기석 △항공소재부품프로그램장 최미진 △미래항공기프로그램장 이광병

**부음**

▲윤종길씨 별세, 윤철수(태안군 수산과 어업지도선선장)씨 부친상=31일, 보령 웅천장례식장 3호실, 발인 4월2일 오전 8시20분, 장지 보령시모란공원. 041-931-3444

# 최태원 "복합 위기, AI 전환으로 도약 기회 삼아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상의,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  
중동 리스크·관세 불확실성 진단  
"AI 전환 파도 올라 새 도약 나서야"

"복합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도약에 나서겠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그룹 회장)은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제53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중동 리스크와 관세 불확실성 등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인공지능(AI) 전환이라는 과도에 다시 한번 올라타면 지금의 상황은 도전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생산·소비·투자가 4년 만에 모두 증가하고 수출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중동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제53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

사태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1974년 1차 오일쇼크를 거론하며 "당시에도 에너지 수급 차질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선배 기업인들은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를 돌파했다"며 "그 실행력과 똑심이 오늘의 한국 경제를 만든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도 올해를 '경제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에 선배 상공인들이 항상 그래왔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도전을 이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글로벌 공급망 확대, AI 기반 제조 혁신을 이끈 기업인들이 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금

탑산업훈장은 접착 소재 국산화를 이끈 이성호 유니테크 회장, 에너지 공급망 확충에 기여한 이종훈 인천도시가스 회장, 산업용 정밀 공구 시장을 개척한 윤혜섭 다인정공 회장이 수상했다.

은탑산업훈장은 AI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한 송현중 SK하이닉스 사장과 자동차 부품 분야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이끈 김재산 코리아에프티 대표가 받았으며 동탑산업훈장은 자동차 엔진 핵심 부품 국산화를 이끈 정병기 계양정밀 대표와 첨단 소재 국산화 및 친환경 기술 개발을 주도한 김중섭 에코프로 에이치엔 대표에게 돌아갔다.

/원광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 기아 EV9, 북미·유럽서 잇단 수상

EV9 GT, 독일 전기차 비교평가 1위  
성능·충전 편의성·공간 활용 부각

기아의 플래그십 전동화 SUV EV9이 북미와 유럽의 주요 자동차 어워드를 잇따라 수상하고 안전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31일 기아에 따르면 EV9의 고성능 모델인 EV9 GT는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발트의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583점으로 1위에 올랐다. 경쟁차인 볼보의 플래그십 전기차 EX90(565점)보다 18점 앞섰다.

EV9 GT는 508마력의 강력한 성능을 바탕으로 한 파워트레인과 800V 고전압 시스템의 우수한 충전 편의성, 넉넉한 공간 활용성 등이 강점이다.

EV9은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26 캐나다 국제 오토쇼에서도 올해의 전동화 유틸리티 차량으로 선정됐다.

또 영국 자동차 매체 '왓 카'가 주관하는 '2026 왓 카 어워즈'에서는 최고의 7인승 전기 SUV로 선정됐다. 미국 시장에서는 카 앤 드라이버의 2026 에디터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중형 전기 SUV 부문 최고 모델로 선정된 바 있다.

양성준 기자 ysw@

## IBK기업은행, 청소년 불법도박 차단 강화

서울경찰청 주관 릴레이 캠페인

IBK기업은행은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온라인 도박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특히 캠페인 참여와 더불어 불법도박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불법도박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금융·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통해 실효성 있는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장민영은행장은 "앞으로도 국책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금융범죄 예방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유한양행, 전 사업장서 헌혈 캠페인 진행

임직원 71명 참여·헌혈증 기부 동참

유한양행은 혈액 수급난 해소와 암환자 지원을 위해 서울 대방동 본사를 비롯해 연구소, 공장 등 전 사업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헌혈에는 총 71명의 직원이 참여했고 캠페인 기간 동안 임직원들은 직접 헌혈에 참여할 뿐 아니라, 현장에 설치된 기부함을 통해 헌혈증서

기부에도 적극 동참했다. 모인 헌혈증서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 수혈이 절실한 소아암 환아들에게 전달되며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유한양행은 2008년부터 19년째 헌혈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진행해 현재까지 누적 참여 임직원 수는 약 2500명에 달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2026년 제1차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일자 | 2026. 3. 31(화) KOSME 중소기업인성공단)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왼쪽 6번째)이 진주 본사에서 열린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종료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 중진공, 윤리·인권경영 내실화 나선다

제1차 윤리·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현장 중심의 윤리 경영 정착과 인권 존중 문화 내실화를 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진공은 31일 오후 중진공 진주 본사에서 '2026년 제1차 윤리·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진공 윤리·인권경영위원회는 기관의 윤리·인권 관련 주요 의사결정 및 자문을 수행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위원장인 강석진 이사장을 포함한 내부 임원 2명과 외부 윤리·인권 경영 전문가 4명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윤리·인권경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공공 분야

전반에서 부각되고 있는 주요 윤리·인권경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중진공의 전략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위험요소 관리 체계 고도화, 신고제도 실효성 강화, 인권존중 문화 확산 등이다.

특히, 청렴경영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장 접점 중심의 윤리경영을 일상 업무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통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 채널 안내가이드 제작 등을 통해 신고 절차와 보호체계를 명확히 안내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최재호 "투명·공정, AI 혁신 이끌 것"

(유진기업 사장)

한국레미콘공업협회장 공식 취임

최재호 유진기업 사장(사진)이 한국레미콘공업협회장에 공식 취임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최재호 사장을 제2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임 최재호 회장은 레미콘 산업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업계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동안 협회 발전과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레미콘 업계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와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



하며 두터운 신뢰를 얻어왔다.

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최 회장은 "운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회원사와의 소통을 강화해 업계 안팎에서 깊게 신뢰받고 책임있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인공지능(AI) 기반의 공정 혁신을 통해 레미콘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 마스크 문화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가끔 보는 코미디 유튜브에서 코로나 시절에 학창 시절을 보낸 학생들이 동창회에 모여서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 물론 코미디 프로그램이다 보니 과장된 내용이지만, 왠지 이해되는 내용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인의 일상을 바꾸었고 그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단연 '마스크 착용' 일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이 잦아들자마자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그 시절을 잊고 있다. 마스크 없이 생활했던 원래의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왔다.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겨울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

갑자기 사라진 마스크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에게 마스크는 일상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마스크는 주로 방한용품으로 사용되는 물건이었고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일회용 마스크가 등장하였다. 즉, 일상에서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보조적인 도구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상황은 우리와 다르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우리와는 달리 오랜 시간 형성된 생활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화분증(花粉症)-꽃가루 알레르기'이다. 일본은 봄철 삼나무 꽃가루가 심하게 날려 상당수의 국민이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오래전부터 눈이 녹기 시작하는 늦은 겨울부터 봄까지 마스크는 필수적인 생활용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감기 예방뿐만 아니라 꽃가루 차단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로 마스크가 일상화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이미 일상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도 그 습관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일부 설문조사에서 "마스크를 벗으려니 화장에 신경을 써야 해서 불편하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표정이 드러나지 않아 좋다."라는 내용이 가끔 등장한다. 그것은 마스크가 단순히 위생 용품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

적 안정과 편의성도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팬데믹 기간에 우리도 경험했고, 그 때문에 마스크를 벗는 것이 아쉬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편의보다는 특수한 상황의 종료에 따른 일상 복귀라는 사회적 흐름이 더 크게 작용했을 뿐이다. 결국 마스크 착용의 지속 여부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생활 문화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마스크가 특수 상황에 사용하는 보조적인 도구인 한편, 일본에서는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일상용품이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하고서도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종식되었으나 그것이 남긴 흔적은 각 사회의 문화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는 마스크를 벗음으로써 일상을 회복하였고, 일본은 마스크를 유지함으로써 기존의 생활방식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같은 도구라도 사용하는 방식이 사회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유는 이러한 사소한 생활 문화가 다른 방향으로 축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AI반도체 호황 속 엇갈린 산업 온도



기지수첩  
구남영  
(산업부)

인공지능(AI)이 산업계의 표정을 바꾸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앞세운 반도체 업계는 수년 만의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AI 메모리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과 투자 확대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반도체로 쏠리는 이유다. 실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올해 9750억달러 규모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업황 개선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할 문제다.

AI 서버 증설과 빅테크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HBM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 수요는 분명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같은 흐름이 산업 전반의 경기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PC와 모바일 등 전통 수요처는 여전히 약한 흐름을 이어가며 업종별 회복 속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스마트폰과 PC, 가전 등 소비자들과 연결된 업종은 여전히 전방 수요 둔화와 원가 부담에 직면해 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은 반도체 기업 실적에는 호재지만, 완제품 업체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역시 변수다. 여기에 애플과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원가 절감과 현지 조달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전자·부품업계는 수요 둔화와 공급망 변화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koogija\_tea@metroseoul.co.kr

수요 지표도 아직 완전한 회복과는 거리가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PC 출하량은 전년 대비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 부담이 소비 수요를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처럼 AI 반도체와 직접 연결된 일부 영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전체 산업 생태계의 회복 속도에는 여전히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숫자의 개선과 현장의 체감 경기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론의 확산보다 냉정한 점검이다. HBM 호황이 산업 전반의 구조적 회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특정 분야에 국한된 국지적 호황에 머물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AI가 만든 봄기운 속에서도 산업 생태계 곳곳에는 여전히 온도차가 남아 있다.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일 (음 2월 14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좋은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60년생** 지금부터 새롭게 변신하면 길운이 열립니다. **72년생**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도 길하지 못합니다. **84년생** 기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  **49년생** 다 된 일을 망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행동하세요. **61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73년생** 기쁜 일이 생깁니다. **85년생** 이익이 넘치는 하루가 됩니다.
-  **50년생** 고민이 있으면 가족과 상의하세요. **62년생**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 합니다. **74년생** 업무에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86년생** 식중독을 조심하세요.
-  **51년생** 계약이나 흥정을 할 경우 잘 성사됩니다. **63년생** 일거리가 밀려 매우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75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세요. **87년생** 어렵던 상황이 호전됩니다.
-  **52년생**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64년생** 남을 도우면 훗날 큰 이익이 됩니다. **76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88년생** 사방에서 갈탄 기운이 감싸고 있습니다.
-  **53년생** 끝이 없고 같이 분명치 못합니다. **65년생** 운은 좋은 시기를 만났으나 마음이 심란합니다. **77년생** 언행을 조심하도록 하세요. **89년생** 사소한 일로 인해 친구와 다투게 됩니다.
-  **54년생**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으면 남들에게 베풀세요. **66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78년생**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집니다. **90년생** 밖에서 행운이 들어옵니다.
-  **55년생** 오랫동안 노력한 대가의 빛을 보게 됩니다. **67년생** 활기차고 평온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79년생**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을 보이기 바랍니다. **91년생** 이성에 선물을 받게 됩니다.
-  **56년생** 반드시 기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68년생** 인간관계를 조심하세요. **80년생** 친한 사람의 배신을 조심하세요. **92년생** 비록 추진함은 있으나 뜻대로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  **57년생** 다른 사람의 재물을 괜히 탐내지 마세요. **69년생**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나쁜 기운을 받게 됩니다. **81년생** 재물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93년생** 본인의 의지를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  **58년생** 여행을 통해 머리를 맑게 하도록 하세요. **70년생** 공공 기관을 조심해야 끝까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82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94년생** 조심스런 하루를 보내세요.
-  **59년생** 좋은 사람이 도와 줄 것이니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71년생** 늘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세요. **83년생** 아름답고 빛이 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95년생** 학업에 매진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 김상회의四季 운세 살피기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필자의 어릴 적엔 보통 일반가정에서는 화투로 일과를 점쳐보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그 유명한 '고도리'라는 만화 역시 화투놀이에서 나온 것인데, 요즘 Z세대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일간지에서 '오늘의 운세'를 게재했는데 과거에는 자신의 사주나 운세를 알려면 전문 역학인이나 무속인들에게 묻는 것이 다였으며, 민간에서 즐겨 사용하는 것은 토정비결이나 당사주 책이었다. 토정비결이나 당사주 역시 보는 방법은 전통적인 사주명조 감명보다야 쉬운 편이지만 이 역시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나 언문을 읽을 줄 아는 할머니들이 봐주기도 했었고, 간단히는 손가락 마디를 짚어가며 당사주의 기본 운기를 봐주는 정도였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단순해 보이는 당사주도 개인의 운명의 개략을 보는 데는 허술하지 않다는 점이다. 초년부터 말년까지 운기의 요점을 뽑아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비해 토정비결은 운기가 좋은 좋지 않은 간에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팁을 준다. 예를 들어 토정비결의 123과 내용 중 일부를 보면 "수왕기추 구주상존 허황지사 신물행지(雖曰箕?舊主?存虛荒之事慎勿行之), 유지미취 신수나하 사직불리 농즉유리(有志未就 身數奈何 仕則不利 農則有利)"라고 되어 있다. 뜻인즉슨 "허황은 키나 빗자루라도 본디 주인은 따로 있다. 허황한 일은 삼가고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뜻은 있으나 취할 수 없으니 이 운수를 어찌하라. 벼슬은 불리하고 농사를 지으면 유리하다."이다. 분명 좋은과는 아니지만 벼슬을 취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농사를 지으면 유리하다고 말해 주니, 잠시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씨 뿌리고 작물을 키우는 일거리를 하는 가운데 때를 도모할 수 있음을 일러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원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6 4		9
				3 7
1 5	9 7			8
			8	
1	9		5	4
5				
7		8 9	6 4	
3 9				
5		2 1		7

5		6		1	4
				2	
4 1		8 3			
			1	3	6
		1 3	8 5		
3	7	2			
			8 9		3 1
	6				
9	2		4		7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피어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2	6	9	1	2	8	7	9
2	1	8	9	7	2	9	6	8
9	7	9	6	8	8	1	2	2
1	6	8	8	2	7	2	9	9
7	2	9	2	8	9	6	8	1
9	8	2	1	6	5	2	8	7
8	9	7	8	6	9	1	2	2
2	8	1	2	9	8	7	9	6
6	9	2	7	9	1	8	2	8

2	9	8	7	9	1	2	8	6
2	7	6	8	2	9	9	8	1
1	8	9	6	8	2	9	7	2
8	1	7	9	2	6	2	9	8
6	1	9	8	7	8	1	9	2
9	2	8	9	1	2	7	6	8
9	9	2	8	8	6	1	7	7
8	6	2	1	9	7	8	2	9
7	8	1	2	6	9	8	2	9

### metro 메트로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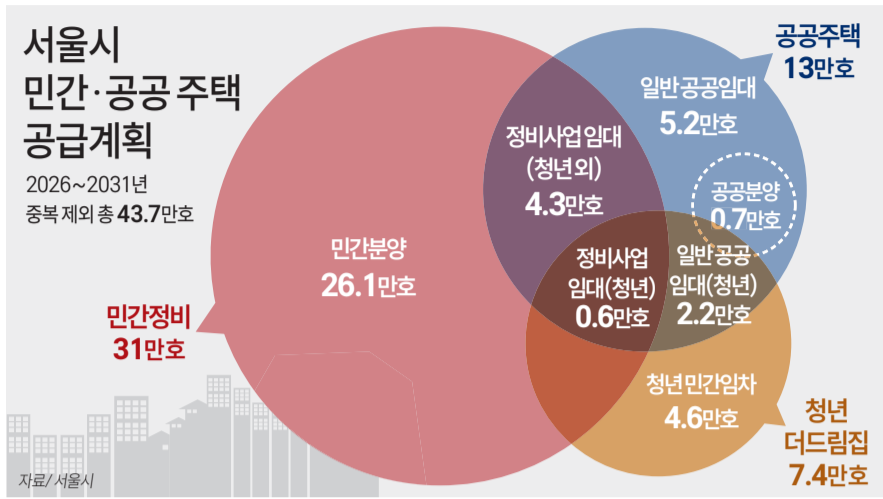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8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9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계약금 20% 내고 20년 분할상환...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서울시, 무주택자 주거안정 대책 무이자 대출·월세 지원 대상 확대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로 추가 공급



서울시가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지급한후 최대 20년간 잔금을 갚아나가는 '바로내집'을 포함해 공공임대·공공분양 13만호를 중장기적으로 공급한다. 무이자 대출과 월세 지원 대상도 청년·신혼부부에서 중장년층까지 넓힌다.

서울시는 전월세 매물 부족과 주택시장 불안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지원,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 시장 정밀관리까지 포함한 종합 대응에 나서겠다는 게 골자다.

### ◆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서울시는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안

심전세 등 기존 공급방식을 통해 12만 3000호를 신속히 공급하고, 무주택 서울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인 '바로내집'도 도입해 2031년까지 6500호를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호와,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낸 뒤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잔금을 갚아나가는 할부형 500호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커진 노후 임대단지 3만 3000호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세대를 추가 확보한다. 우선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재정비에 공공임대와 분양을 합쳐 총 9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토지임대부 주택 4000호도 포함된다.

현재 선도사업인 상계마을-하계5단지 1700호는 전량 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으로 공급되며, 2030년 입

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 ◆ 공공임대 '미리선발 바로입주'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한다. 기존처럼 연중 나눠 모집공고를 내는 대신, 사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일괄 시행하고 예비입주자를 미리 선발해 공실이 발생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서울 전역 253개 구역, 31만호 규모 정비사업의 이주 시기도 관리해 전월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 기존에는 2000년대 초과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시기를 조정했지만, 앞으로는 1000년대 초과 사업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시는 인접 자치구 상황도 함께 분석해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는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

장년 250호, 등록임대 만묘가구 250호까지 넓힌다.

### ◆ 월세 지원과 적금 결합 통장도

서울시는 중장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과 저축을 결합한 자산형성 모델도 도입한다.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이어 수혜자가 2년간 매월 25만원씩 적금을 납부할 경우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2년 뒤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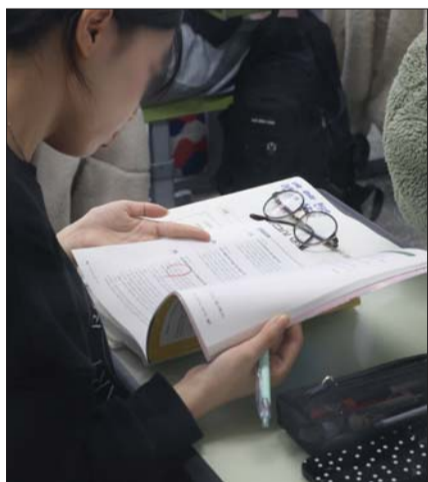
## 올 수능 11월 19일... 국어·수학 선택 마지막

17개 과목 중 최대 2과목 선택 EBS 간접연계 50% 원칙 유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치러진다. 올해는 국어·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치러지는 마지막 수능으로,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 최대 2과목 선택 체제도 이어진다. EBS 간접연계 50%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으로 구분된다.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메트로신문 DB

올해 수능은 마지막 선택형 시험으로,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국어 영역은 공통과목에 더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을, 수학 영역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는 국어·수학 영역은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방식을 거쳐 표준점수를 산출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2개 과목 응시 때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직업탐구는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등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영어 영역은 총 45문항으로, 이 가운데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한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이현진 기자

## 6월 4일 수능 첫 모평... 적정 난이도 유지

사교육식 문제풀이 유리 문항 배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6월 4일 치러진다. 이번 모의평가는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고,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의 간접연계 50% 기조도 이어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해결 가능한

문항을 출제할 예정이다. 전 영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되며,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을 유지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으로 구분된다.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이번 모의평가는 2027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 GM 대규모 투자... 인천, 수출 거점 기대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인천광역시시는 한국GM 부평공장에 대한 GM 본사의 대규모 투자 결정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생산시설 고도화와 미래 자동차 산업 기반 구축을 포함하고 있

어,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투자로 인천이 글로벌 수출 경쟁력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동시에 첨단 제조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경제 전반에도 파급 효과가 예상

된다. 인천시는 이번 투자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협력업체와 연관 산업을 포함한 '상생형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성장 효과가 확산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투자 유치를 넘어 산업 구조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오늘의 날씨  
4월 1일 (수)  
음력: 2월 14일

수도권 날씨  
10~1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국무장관 "NATO 이란사태 비협조 실망... 전쟁 후 재검토할 것"  
▲스페인, 美 공동기지 사용 불허에 이어 군용기 영공 통과도 거부 /사진 뉴시스

▲이란, 예멘 후티 반군 통해 홍해 압박...유가 압박 심해질 듯  
▲美 82공수사단 중동 도착...이란 겨냥 지상전 압박 강화

▲이란, 쿠웨이트 유조선에 드론 공격...고유가 공감 확산  
▲러시아, 일본 겨냥 "가격상한제 국가엔 원유 팔지 않을 것"



JT코리아  
플롬 아우라 공개  
전자담배 판 흔든다  
니



Life

한미약품그룹  
체질개선 시동  
전략·투자 전면예  
L2



# 고성능 EV부터 로봇까지... 뉴욕 사로잡을 K-모빌리티 출동

## ‘뉴욕 국제 오토쇼’ 3일 개막

현대차, 북미 36종 신차 순차출시  
휴머노이드로봇 공개... 기술력 과시  
기아, 2세대 셀토스 미국 최초공개  
제네시스, 고성능 EV 경쟁력 강조

폭스바겐, 풀체인지 아틀라스 선보  
닛산, ‘레트로 감성’ 스포츠카 공략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꼽히는 북미 시장 공략에 집중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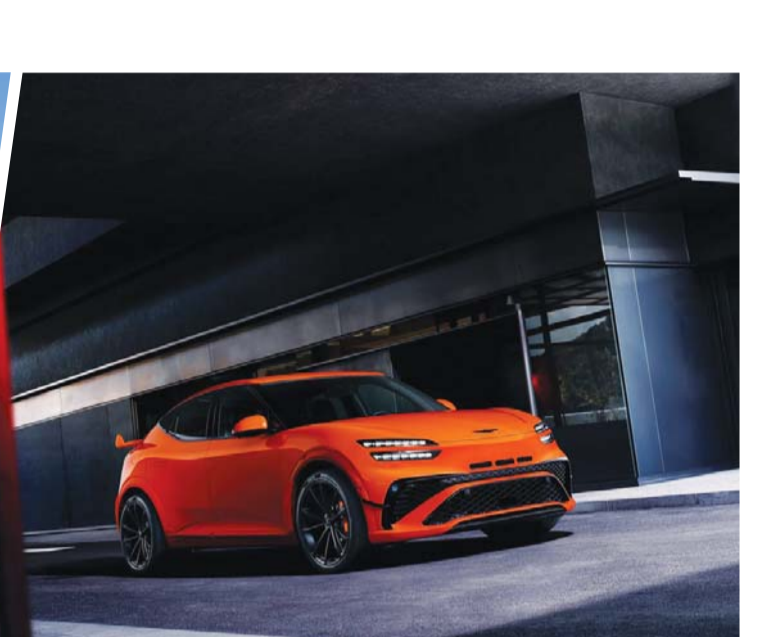
현대차와 기아는 뉴욕에서 개최되는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북미 시장을 겨  
냥한 신차와 친환경차 라인업을 대거 공  
개한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북미 시장  
에서 36종의 신차를 순차적으로 출시하  
는 등 공격적인 성장을 이어간다는 방침  
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3  
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미국 뉴욕  
맨해튼 제이콥 재비츠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2026 뉴욕 국제 오토쇼’에 참가  
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하이브  
리드차 등 북미에서 수요가 높은 차종을  
중심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기아는 2세대 ‘셀토스’를 미국 시장에  
처음 공개하며 소형 SUV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셀토스는 2024년 북미 출시 당  
시 6만1000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  
으며 이후 꾸준한 판매를 이어오며 소형  
SUV 부문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번 2세대 모델 공개로 북미 소형



기아 디올 뉴 셀토스.



제네시스 GV60 마그마.

SUV 시장 공략을 이끌어갈 전망이다.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고성능 전기차 ‘GV60 마그마’를 통해 전  
동화 라인업 경쟁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폐지 등으로 전  
기차 판매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성능 전  
기차에 대한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다져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지난 2016년 미국  
시장 진출 이후 꾸준한 성장곡선을 그리  
고 있다. 지난해 8만2331대를 판매하며  
첫 연간 판매 8만대를 돌파했으며 누적  
판매 40만대도 넘어섰다.

현대차는 또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 사  
장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망을 논의하  
는 패널 토론에 참여해 미국 시장과 전  
동화 전략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현대차는 고객 점점 확대를 위해 다양  
한 체험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이

오닉 5, 아이오닉 5N, 아이오닉 6N, 아  
이오닉 9 등을 활용한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람객이 직접 전기차의 주행 성  
능과 기술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공개하고 미래 기술력도 강조할 방침이  
다. 현대차그룹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다  
이나믹스의 4족보행 로봇 ‘스팟’과 휴머  
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전시장에 등  
장해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  
다. 현대차그룹이 단순히 자동차 제조사  
를 넘어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업으  
로의 전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이번 모터쇼  
에서 신차 중심의 전시회를 이어갈 전망  
이다.

폭스바겐은 세계 최초 공개를 앞둔 2  
세대 대형 SUV ‘아틀라스’ 완전변경 모  
델을 공개한다. 이번 모델은 2017년 1세

대 출시 이후 9년 만에 선보이는 완전 변  
경 모델로 모든게 새롭게 설계됐다. 외  
관은 더욱 각진 형태의 전면 그릴과 헤  
드램프를 통해 근육질의 인상을 강조하  
며 최신 폭스바겐 헤리티지인 일자형 L  
ED 라이트 바가 적용된다.

닛산은 스포츠카 ‘Z’의 부분변경 모델  
을 선보인다. 이 차량은 레트로 디자인  
과 수동 변속기를 추가해 스포츠카 감성  
을 유지하며 차별화를 꾀할 방침이다.  
스텔란티스는 미니밴 ‘퍼시픽’ 부분변  
경과 상용 밴 ‘프로마스터 시티’를 공  
개하며 실용 차종 중심 전략을 강화한다.  
스바루는 신규 전기차와 함께 ‘포레스터  
와일드니스 하이브리드’를 선보이며 하  
이브리드 수요 대응에 나선다. 이 외에  
도 제너럴모터스(GM)과 지프, 포드 등  
현지 업체는 물론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대거 참

여해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이번 뉴욕 오토쇼는 인공지능(A  
I) 로봇틱스와 자율주행 등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보다 소비자들의 구매와 직결되  
는 신차 알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북미 시  
장에서 183만대를 판매하며 사상 최고치  
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시장  
에서 전년대비 7.9% 증가한 98만4000대  
를 판매해 6.0%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투싼, 싼타페, 팰리세이드 등 주요 모델  
의 연간 판매 신기록 달성고 하이브리드  
차 수요 증가에 힘입어 3년 연속 판매량  
최고치를 경신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2030년까  
지 북미 시장에 36종의 신차  
를 순차적으로 출시하겠다”  
고 언급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연비효율에 승차감은 덤... SUV 차주 반한 ‘맞춤 타이어’

## 금호타이어 ‘크루젠GT Pro’ 출시 정숙성·제동 등 소비자 반응 긍정적 이전 모델 대비 청킹현상 ‘논란 無’

금호타이어가 지난 17일 프리미엄 S  
UV 시장 공략을 위해 출시한 신제품 ‘크  
루젠 GT Pro’의 초반 소비자 반응은 성  
공적이다.

금호타이어가 쏘렌토와 카니발 동호  
회 회원을 대상으로 올해 초 ‘크루젠 GT  
Pro’를 제공하고 1, 3개월 간격으로 체  
험기를 올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온라인상에는 해당 동호회를 중심으로  
제품 사용 후기 글이 하루 수십 건씩 올  
라오고 있다.

3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기아  
쏘렌토 공식 동호회’ 등에는 해당 제품



금호타이어 신제품 ‘크루젠 GT Pro’ 앞에서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의 정보와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담은 글  
이 올라오고 있다. 1개월, 3개월 동안 체  
험한 내용을 정리했으며 한 이용자는 1

개월에 1만km 가량 주행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해당 제품에 대해 정숙성  
과 뛰어난 제동 성능에 대해 긍정적인 평

가를 하고 있다.

크루젠 GT Pro 이전 모델인 크루젠  
HP71에서 발생한 고무뜯김(청킹) 현상  
에 대한 논란도 없는 상태다.

이는 금호타이어가 크루젠 GT Pro 출  
시 당시 강조했던 트레드웨어를 800까지  
강화해 마일리지 성능을 향상시킨 영향  
이 크다.

SUV 전용 브랜드 ‘크루젠’은 2013년  
첫 출시 이후 글로벌 누적 약 6530만본이  
판매된 금호타이어 대표 SUV 타이어 브  
랜드다. 크루젠 GT Pro는 그동안 기술  
력을 집약해 완성한 제품으로 정숙성과  
승차감을 강화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회전저항을 낮춰 연비 효율을 개선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내 SUV 타이  
어 가운데 유일하게 에너지소비효율등

급(RR·회전저항) 2등급을 획득했다. 특  
히 모든 규격에서 미국타이어타이어 트  
레드웨어를 숫자로 표기한 품질 기준인  
UTQG 마모지수 800을 확보해 경쟁 제  
품 대비 마일리지 성능을 20% 이상 개선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마모지수를 높여 타  
이어 수명은 길어졌지만 접지력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마모지수가 높은 숫자는 보통 고  
무가 단단해 제동력이나 승차감이 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마모지수는  
500~700 정도는 사계절용이나 장거리  
주행 등 오래사용하는 제품으로, 100~  
200은 접지력이 좋은 스포츠·고성능 타  
이어로 분류되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트레드웨어를  
800까지 끌어올린 만큼 빗길이나 포트  
홀 등에서 접지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슬  
립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  
했다.

/양성운 기자

## 메트로 한줄뉴스



▲프로야구 삼성 개막 직후 2연패...박진만 “세번  
째부터 밸런스 잡힐 것”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타율 0.077 부진 지속...  
팀은 연패 탈출 /사진 뉴시스

▲이천수, 0-4 홍명보호 겨냥 “팀 연습 없나...이  
해하기 어려운 스코어”  
▲홍명보호, 4월 1일 새벽 오스트리아와 평가전...  
핵심 공격수 전원 투입

▲남자배구 삼성화재, 새 사령탑에 토미 킬리카이  
넌 前 대한항공 감독 선임  
▲LCK, 조세회피 논란 ‘롤러’ 박재혁 선수 징계  
처분 검토